



DMZ story,

두 번째 이야기

바위가 말을 걸다...

DMZ STORY 소개



이 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한국문화원연합회 가 주최하는

2012 향토사대중화사업의 결과물로 제작되었습니다.

2012 향토사대중화 사업

DMZ story, 바위가 말을 걸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원연합회

2012 향토사대중화 사업

DMZ story,

두 번째 이야기

바위가 말을 걸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원연합회
철원문화원 화천문화원 양구문화원 인제문화원 고성문화원

- DMZ스토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진행하는
- 2012 향토사대중화사업의 일환으로
- 강원도 접경지역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5개 문화원이 함께 참여한 기획프로그램입니다.



DMZ story,
두 번째 이야기
바위가 말을 걸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원연합회

철원문화원 화천문화원 양구문화원 인제문화원 고성문화원

DMZ story,

두 번째 이야기

바위가 말을 걸다...



초 판 인 쇄 2012년 12월 18일
초 판 발 행 2012년 12월 20일
발 행 처 철원 · 화천 · 양구 · 인제 · 고성문화원

에 디 터 이민아
디 자 인 서정일
영 상 편 집 황시내
웹 페이지 김선주
출판 · 기획 문화컨설팅 바라

함께한 분들

철원문화원 김철암
화천문화원 정종성
양구문화원 김인제
인제문화원 백창현
고성문화원 박명재

· 전적비 戰蹟碑 ·

전쟁의 경과나 결과 또는 자취 등을 기록하여
길이 후세에 전하려는 목적에서 세운 비

· 순의비 殉義碑 ·

의를 위하여 죽은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

· 충혼비 忠魂碑 ·

충의를 위하여 죽은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

· 추모비 追慕碑 ·

죽은 사람을 그리며 생각하기 위하여 세운 비

· 망향비 望鄉碑 ·

고향을 그리워하며 생각하기 위하여 세운 비

· 위령비 慰靈碑 ·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세운 비

· 충령비 忠靈碑 ·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비

*일제의 침략에 항거한 의병들의 애국적 행적을 기리거나
6.25전쟁에서 희생된 분들의 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전적비는
있지 말아야 할 우리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DMZ스토리, 두 번째 이야기 '바위가 말을 걸다'』는
강원도 접경지역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5개 군에 남아있는
40여 개 전적비에 대한 기록입니다.

격려사



강원도 DMZ(비무장지대) 접경지역 5개 문화원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이 공동으로 주관한 『DMZ 스토리, 두 번째 이야기 ‘바위가 말을 걸다’』의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2012향토사대중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금번 사업은 2011년에 만들어진 『DMZ 스토리, 첫 번째 이야기 ‘과거와 현재 그리고 우리들’』에 이어 6.25전쟁 등으로 건립된 지역의 전적비에 대한 이야기를 청소년의 시각으로 풀어냈습니다. 더불어 기념비가 세워진 의미와 배경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기성세대와의 의사소통 기회를 만들어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DMZ story,

두 번째 이야기

바위가 말을 걸다...

『DMZ 스토리』는 전근대의 향토사 뿐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지역의 역사,
문화를 함께 보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특히, 본 책자가 완성되기까지 청소년들이 땀 흘리는 열정과 자기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수고
와 열정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충분한 밑거름이 되리라 의심
치 않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지도하신 선생님들과 문화원에게도 깊
은 존경을 표합니다.

다시 한 번 『DMZ 스토리, 두 번째 이야기 '바위가 말을 걸다'』의 발
간을 축하드리며 5개 문화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11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 오 용 원

퍼내면서

『DMZ스토리, 두 번째 이야기 ‘바위가 말을 걸다’』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강원도 접경지역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친구들이 발로 뛰며 찾아낸 이야기입니다.

무심코 스쳐 지났을 길 한편에 덩그러니 서 있는 바위, 그 바위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바위가 우리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리 와~! 얼른 와서 내 얘길 들어보렴.”

우리는 바위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단어도 많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문화원 선생님들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바위가 들려주는 이야기 듣기를 포기했을 지도 모를 일입니다.

바위가 건넨 이야기, 그 속에는 전쟁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의 사연이 담겨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기억하고 그 영혼을 위로하는 일도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모두를 죽이는 나쁜 전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평화가 가득한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바위와 함께 한 2012년, 많은 것을 배운 만큼 오래도록 잊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DMZ스토리, 두 번째 이야기 '바위가 말을 걸다'』를 펴낼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한국문화원연합회,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문 화원 관계자와 지도교사님들, 그리고 올해도 변함없이 'DMZ스토리'와 함께한 멋진 친구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이 땅의 전투전적비들은 그 존재만으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수많은 전투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

모든 이야기를 품고 있는 바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 전투들은 너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들이야.

그 때 울려 퍼진 함성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리니?

들판을 물들였던 붉은 피가 보이니?

잘 듣고 잘 보렴. 그리고 절대로 잊지 마.

너희는 이런 일들을 되풀이해서는 안 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렴.”

| DMZ story, 바위가 말을 걸다...

DMZ story,

두 번째 이야기

바위가 말을 걸다...

목차

Chapter 1. 철 원

‘철의 삼각지대’를 사수하라 10

Chapter 2. 화 천

이름모를 ‘비목’ 이어 34

Chapter 3. 양 구

태극기 휘날리던 ‘피의능선’ 62

Chapter 4. 인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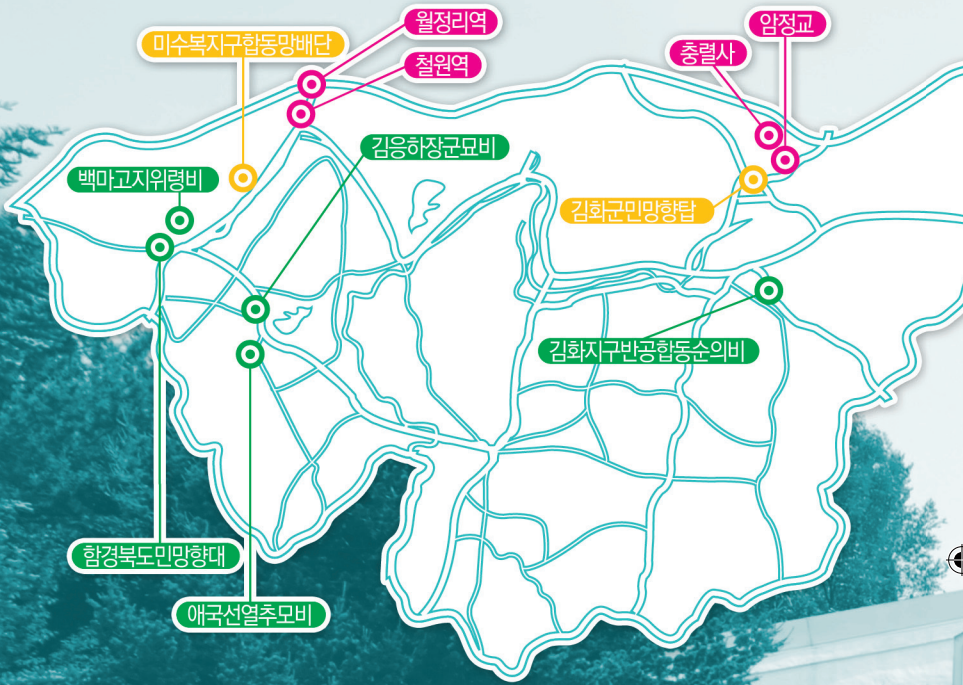
‘백골병단’을 아시나요? 96

Chapter 5. 고 성

‘향로봉’ 너머 금강산까지 122



| DMZ story, 바위가 말을 걸다...



DMZ 철원 영상 QR



삼천봉전적비

chapter 1. 철원



철의 삼각지대를 사수하라

12



철의 삼각지대》

철의 삼각지대는 평강군, 철원군, 김화군을 잇는 지리상 삼각지대의 군사적인 호칭이다. 6.25 전쟁 당시 전략적 요충지로서 중부전선의 장악을 위한 중요한 거점이었다. 특히 북한군의 본거지로 아군이 공격하기에는 불리하고, 적 이 방어하기에는 최적의 지형적 특징을 지녀 ‘철의 삼각(Iron Triangle)’이라 부르게 되었다.

6·25전쟁 당시에 북한군과 중공군은 나진·성진·원산항으로 실려 온 군수물자와 각지에서 동원된 병력을 이곳에 집결시킨 뒤 전선에 투입하였으며,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크고 작은 작전이 이 일대에서 수없이 펼쳐졌다.

백마고지》

어릴 때는 백마고지가 도시락 싸서 놀러가는 공원인 줄 알았다. 그런데 이변에 다녀온 백마고지는 역사의 흔적이었다. 6.25전쟁 중 가장 치열한 접전이 이루어진 곳으로, 전투 당시 심한 포격으로 산등성이가 허영게 벗겨져 마치 백마가 쓰러진 모습이었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백마고지는 회고의 장·기념의 장·다짐의 장으로 나누어져 있고, 회고의 장에는 **백마고지위령비**가 있다. 3천여 명의 장병을 뜻하는 판석과 시 ‘백마의 얼’이 적힌 위령비 앞에서 우리는 묵념의 시간을 갖고 기념의 장으로 올라갔다. 그곳에는 당시 전투에 쓰였던 총·철모·지휘봉 등이 전시되고 있었고, 탄피를 녹여 만든 기념비가 있었다.

12차례에 걸친 전투 설명 중에 ‘육탄 3용사’라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적군의 기지에 수류탄을 들고 직접 뛰어 들어가 파괴시켰다고 한다.



과연 나라면 할 수 있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워주신 분들을 생각하니 고개가 절로 숙여졌다.

백마고지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백마고지전적비**도 기념의 장에서 볼 수 있다. 높게 솟은 **백마고지전적비**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모습을 나타내어 통일을 염원하는 것이다. 이곳을 지나 현무암과 나무가 우거진 길을 걷다보니 '자유의 종'과 전망대가 있는 다짐의 장이 보였다. 전망대에 올라 북쪽을 바라보면 실제 전투가 벌어졌던 이군의 기지가 보인다. 특히 기억에 남는 '김일성고지'는 백마고지를 빼앗긴 김일성이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애통해 했던 곳이라고 한다.

백마고지는 조국을 위해 몸을 바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곳이기도 하지만, 통일 이후 새로운 교통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가치를 가진 곳이기도 하다. / **안지혜 (김화고 2)**

◀ 백마고지전적비를 향해 걷고 있는 학생들 / ▼ 통일 염원을 가득 담은 '자유의 종'





철원에서 태어나 18년 동안 철원에서 살아온 나에게 백마고지 견학은 솔직히 '또 백마고지야?' 라는 생각을 하게 했다. 하지만 내 고장 철원을 알리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미리 자료조사를 했다. 백마고지란 이름의 유래에는 전쟁 중 포격에 의해 수목이 다 쓰러져 버리고 난 후의 형상이 누워있는 백마처럼 보였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 백마고지 전적지에서는 회고의 장, 기념의 장, 백마고지 전적비, 상승각 등을 볼 수 있다. 첫 번째 회고의 장에서는 전쟁 중 전사한 모든 군인들의 영혼을 추모하기 위한 위령비와 돌무덤이 위치해 있어 그 앞에서 묵념을 하기도 하였다. 이곳에서는 6월 6일과 10월 10일에 위령제를 연다고 한다. 두 번째로 동관과 서관으로 나뉘어있는 기념의 장을 돌아보았다.

백마고지전투는 1952년 10월 6일에서 15일까지 벌어진 전투로 24차레나 고지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한다. 1차에서 중공군의 선공이 이루어졌고, 4차 때에는 최초로 적군에게 고지를 빼앗겼지만, 3시간 40분 만에 탈환하였다고 한다. 10차 때부터 양측 모두 전투 물자가 부족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때 육탄3용사(강승우, 오귀봉, 안영권)의 희생으로 12차까지 고지를 사수할 수 있었다.

기념의 장 방문 후 전적비를 보았는데 앞부분의 4개의 돌은 4개의 손가락을 뒷부분의 1개의 돌은 엄지손가락을 표현한 것이라 하고, 비마 3마리는 28, 29, 30년을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상승각은 백마고지를 사수하고 있는 5사단을 표현하고 있으며, 에밀레종을 모태로 한 무게 1.8t의 '자유의 종'을 볼 수 있다. 자유의 종을 만든 목적은 통일염원이라고 한다.

백마고지 견학이 처음도 아니었는데 이번처럼 자세히 보고 알게 된 적은 없던 것 같다. 지금의 우리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해주신 많은 전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내가 살고 있는 고장 철원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어 그만큼 애착을 갖게 된 아주 고마운 시간이었다. / **임찬희 (김화교 2)**





▲ 백마고지 내부의 기념관에 전시된 전쟁 당시의 물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백마고지위령비

철원군 철원읍 서북방 대마리에 위치한 **백마고지위령비**는 백마고지 전투에서 희생된 아군과 중공군 등 17,535명(아군 3,146 중공군 14,389)의 영혼을 진혼하기 위하여 건립한 것인데 당초 1985년 6월 6일 육군 제5사단 장병과 지역주민들이 백마고지 후방에 세운 3.6m 높이의 현무암 비석은 오랜 풍상으로 훼손되고 대규모의 위령제를 봉행하는 데는 장소 협소 등의 어려움이 있어 1990년에 철원군에서 위령비 일대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새롭게 단장하였다.

홍익대 강건희(姜建熙)교수가 설계한 기념시설은 회고의 장, 기념의 장, 다짐의 장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처절했던 격전의 현장을 재현하고 높이 22.5m의 기념탑을 세웠다. 『회고의 장』에는 피아 전사자를 추도하는 위령비와 분향소가, 『기념의 장』에는 통일의 염원과 전승을 기념하는 전적비와 함께 당시 백마부대장이었던 김종오(金鍾五)장군의 유품을 전시한 기념관도 배치하였다. 『다짐의 장』에는 전망대와 함께 자유의 종각을 건립하여 현재 국민 안보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 그리운 곳을 향해 절을 하는 장소인 망배단

미수복지구합동망배단은 전쟁 당시 수복하지 못했던 지역인 통천군, 회양군, 이천군, 김화군, 평강군 5개 군에서 온 분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제사를 지내고 통일을 기원하기 위해 만든 곳이다. 철원에는 이렇게 고향을 그리워하며 만든 비들이 많은데 북한과 가까운 이곳에 머무르다 고향에 빨리 돌아가려고 임시로 거주하였으나 통일이 되지 않아서 돌아가지 못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또 철원에는 높은 건물들이 많지 않은데 이것도 통일이 되면 고향에 빨리 돌아가려고 임시로 거처를 정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빨리 통일이 됐다면 이런 비들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많은 분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헤어졌던 가족과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웠다. / **박현군 (김화고 2)**

‘너에게 묻는다’로 유명한 안도현 시인이 “철원은 슬픔과 비(碑)가 많은 곳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랬다. 철원에 있는 망향비와 망배단 등에 대해서 조사하고 알아보기 위해 동송, 대마리, 월정리로 가는 길에 망향비에 대

해 조사된 자료를 읽었는데, 왜 이렇게 철원에 비가 많은지 더욱 궁금해졌다. 도대체 왜 많은 돈을 들여가며 비를 만드는 것일까? 망배단은 사진으로 볼 때와 다르게 꽤나 컸다. 문화원 선생님이 망배단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그 궁금증이 풀렸다. 철원에 이리도 비가 많은 까닭은 북한이 고향이던 사람들이 통일을 기원하며 망향비를 세웠기 때문이라한다. 가슴아픈 이야기다.

/ 오현주 (김화고 1)

! 미수복지구합동망배단 !

실향의 설움과 아픔을 함께하는 강원도 미수복 군민들이 힘을 모아 한 맺힌 소망인 조국통일의 의지를 굳건히 다지고 조상에 대한 흠모와 애뜻한 향수를 달래고자 1989년 4월 철원군 철원읍 외촌리 331번지에 합동 망배단을 세우게 되었다. 사각 기단 위에 육각형으로 1.1m의 석대와 그 위에 높이 3m, 두께 73cm의 화강암 비신으로 조성되어 있다. 강원도 미수복 군민회에서는 매년 6월에 합동 제례를 지내고 통일의 그날이 오기를 기원하고 있다. (강원도 미수복군민회 : 통천, 회양, 이천, 김화, 평강)





애국선열추모비》

Ⅰ 애국선열추모비 Ⅰ

- 애국선열추모비는 철원을 화지리(철원고등학교 교정내)에 위치하는데 1967년
- 4월 철원 애국선열기념사업회에서 건립하였다. 탑신 높이 5m, 기단 높이 2m 규
- 모로 화강암과 대리석을 같이 사용하였다.
- 철원은 독립만세 운동이 가장 활발하였던 고장의 하나로서 기미년 3.1운동 당
- 시 이 고장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의 불길은 진실로 죽지 않는 민족혼의 절규였
- 으며 동시에 자손만대에 던진 일대 경종으로서 영세에까지 이어질 자량이다.
- 우리 고장이 낳은 애국선열들이 도피안사에서 애국단을 조직하여 사재를 바쳐
- 민족운동을 전개하고 때로는 민족혼을 계승시키기 위하여 육영사업 등으로 몸
- 과 마음, 온 정성을 다 기울이며 애국운동으로 찬란한 역사를 창조한 바, 이 지
- 사들의 업적과 열을 추모하기 위하여 이 고장 유지와 여러 인사들의 헌금으로
- 이 비가 세워지게 되었다.

김화지구반공합동순의비》

김화지구반공합동순의비는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한다. 뒤편을 보니 그 때 목숨을 잃은 분들의 성함이 적혀 있었는데 몇 가족의 이름도 있었다. 죄 없는 가족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 마음 아팠다. / 박현근(김화고 2)

Ⅰ 김화지구반공합동순의비 Ⅰ

- 근남면 사곡리 당고개 기슭에 위치한 이 묘역은 1948년 12월 23일 ~ 1950년 11월
- 20일 사이에 공산당에게 희생된 78위의 반공인사와 그 가족들의 합동묘역으로
- 지난 1984년에 철원군에서 묘역정비 공사를 하였다.



당초 이 지역은 38이북으로 공산 치하에 있어 공산독재에 항거하는 지하반공 활동과 화랑공작대원들의 반공투쟁이 활발했는데 1950년 11월 20일 새벽 북한군 패잔병과 중공군의 대거 재침 기습작전에 포위되어 주민 70명이 이곳에서 무차별 집단학살을 당하였다.

당시 구사일생으로 생환한 박림환(화랑공작대원:작고)씨가 단독으로 아픔을 이 용하여 가매장에 놓은 것을 1955년 4월 20일 이 지역 기관장과 유지들의 성원으로 분묘를 조성하고 매년 가을(음9.30) 추도식을 거행하였다. 희생자 78명중에는 1948년 10월 23일 김화 근남지역에서 희생된 화랑공작대원 1명과 1949년 3월 원산감옥에서 피살된 공작대원과 반공인사 7명 및 1950년 11월 20일 새벽에 집단 학살당한 70명으로 (남 56, 여 22명) 이 가운데는 15명의 아동이 포함되어 있다.

▼ 공산독재에 항거하던 반공인사와 가족들의 합동묘역인 김화지구반공합동순의비를 둘러보고 있다.

21



김화군민망향탑

1 김화군민망향탑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들판의 일명 '모기동산' 정상에 서 있는 **김화군민망향탑**은 미수복 김화군민들의 망향의 애절함이 담겨 있다. 1945년 8월 15일 조국광복을 맞이했으나 김화군은 38선 이북으로 공산치하에 놓이게 되었고, 6·25전란 후 12개 읍면 중에서 3개 읍면의 일부만 수복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경향 각지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실향군민들은 국토통일과 향토의 완전 수복을 기원하며 선영을 추모하는 애달픈 심정에서 군민의 뜻을 모아 1980년 6월 1일 이 탑을 건립하게 되었다. 탑의 전체 높이는 5.2m로 삼단 기단 위에 화강암의 자연석으로 건립되었으며, 매년 가을 미수복 김화군민들이 모여 망향제를 지내고 있다.

김응하 장군 묘비

1 김응하 장군 묘비

요동백 김응하 장군 묘비는 조선조 광해군 때(1619) 명나라군 주위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조선 원군의 좌영장으로 출정하여 이름을 떨친 충무공 김응하 장군의 무훈과 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숙종 9년(1683)에 철원군 철원을 화지리 향교골(전 철원부 서화전리 일봉산 밑 역촌동)에 세운 기념비이다. 화강암의 석재를 사용하여 정면을 응시한 거북이 조각 받침을 한 위에 250cm의 높이와 폭 98cm, 두께 33cm의 사면 비석으로 장군의 일대기를 현종 10년(1669) 6월 우암 송시열(좌의정)의 글과 사헌부 지평 박태유의 글씨에 영의정 문곡 김수항의 서제자를 곁들여 제작하였다. 당초에는 화지리 향교골 포충사에 함께 있었으나 6.25전란으로 포충사우는 소실되고 비만 남아 있었다. 1984년 4월 3일 철원의 유생 및 철원군수의 노력으로 원위치에서 남쪽으로 2km 떨어진 곡암산 기슭인 철원을 화지리 산 1-1번지에 봉안하였다.

암정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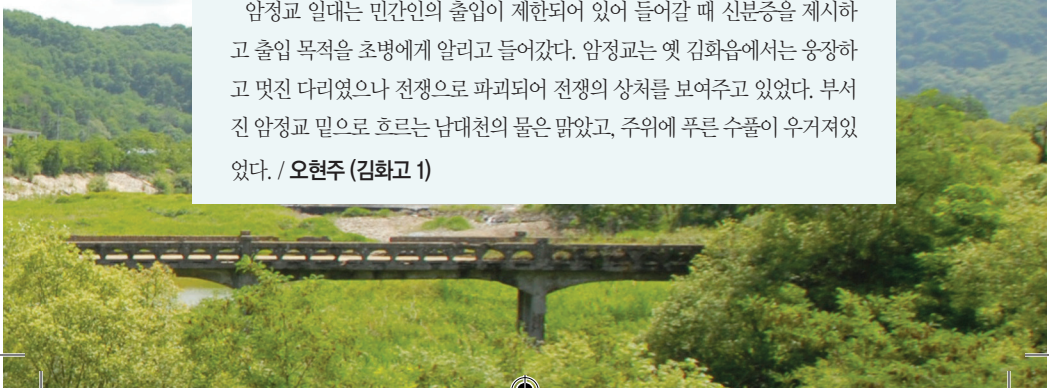
▲ 지난 날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던 암정교. 지금은 강물 위로 조용히 침묵하고 있다.

철원은 교통의 중심지라 많은 물자와 사람들이 이동하였다. 오늘 다녀온 암정교는 금강산철도가 다녔던 교량으로 현재는 100m 길이만 남아 있다. 다리의 오른쪽은 6.25전쟁 때 무너져 버린 모습 그대로 남아 있다. 문화원 선생님께서 암정교가 있는 곳이 민통선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으로 보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하셨다. 통일이 되지 않는 한 철원의 북적북적했던 모습을 다시는 보지 못한다는 의미로 다가왔고, 알 수 없는 애절한 마음이 생겼다.

/ 안지혜 (김화고 2)

암정교는 예전에 금강산 철도가 다니던 다리로 약 100m정도 되는 길이다. 전쟁을 겪으면서 중간에 파괴된 곳도 보였다. 민통선 안에 있기 때문에 보기 쉽지 않은 곳이라 좀 더 관심을 갖고 봤다. 암정교를 걸어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고 해서 아쉬웠다. / 박현근 (김화고 2)

암정교 일대는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어 들어갈 때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 목적을 초병에게 알리고 들어갔다. 암정교는 옛 김화읍에서는 웅장하고 멋진 다리였으나 전쟁으로 파괴되어 전쟁의 상처를 보여주고 있었다. 부서진 암정교 밑으로 흐르는 남대천의 물은 맑았고, 주위에 푸른 수풀이 우거져있었다. / 오현주 (김화고 1)





▲ 충렬사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는 학생들 / ▶ 전쟁 없는 밝은 미래를 꿈꾸며, 파이팅!

충렬사는 병자호란 당시 김화 지역에서 큰 전과를 올린 홍명구 장군과 유림 장군의 위패를 모시던 사당이다. 안쪽에서 두 장군의 모습이 담긴 그림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시비도 있었는데 바로 그 자리가 유림 장군이 전사하신 자리라고 한다. / 박현근 (김화고 2)

충렬사는 병자호란 때 평안도 관찰사 홍명구가 청나라 군사가 이미 평양을 지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군사를 수습한 뒤 추격하여 김화에서 전투를 치르다 장렬히 전사한 곳이다. 조선 효종 원년 김화현 백전읍민들이 3칸 규모의 사당을 건립하여 충렬공 홍명구 선생을 배향하였으며, 조선 효종 3년 충렬사로 사액되었다. 그 후 중수한 기록이 강원도지 등에 전하고 있으나 연대는 알 수 없으며, 1940년대에는 김화 유림의 합의로 당시 홍명구와 함께 싸웠던 충장공 유림 장군을 함께 배향하였다. / 김영준 (김화고 1)



월정리역



▲ 철원의 대표적인 안보관광코스인 월정리역

월정리역은 부어진 열차의 잔해와 ‘철마는 달리고 싶다’라는 팻말로 유명하다. 원래는 승무원이 없는 간이역이었지만, 교통의 요지로 북쪽의 지하자원과 남쪽의 곡물들이 모이는 물류센터까지 형성되었다고 한다. 예전의 철원은 정말 컸다고 한다. 철원역 앞에 있는 별판에는 3000여개의 상가가 형성되어 있었고, 4만여 명이 모여서 살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 터만 남아 있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지만, 사진이나 통계자료를 보면 그 규모를 상상할 수 있다. 그렇게 넓지 않은 별판에 은행이 4곳이나 있었고, 직원이 500명이나 되는 방직공장도 운영되었다고 한다.

설명을 들으면서 그 시대로 돌아가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통일이 되면 철원이 그때 못지않게 발전될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통일이 되어 경원선이 시베리아 횡단 철도까지 이어지면 엄청난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다. 월정리역 옆에 있는 철원 두루미관에도 갔다. 이곳은 철원에 살고 있는 동물들을 박제로 만들어놓은 전시관인데 철원에 이런 동물도 살았나 싶을 정도로 신기하고 다양한 동물들이 있었다. / 박현근 (김화고 2)

월정리역의 ‘철마는 달리고 싶다’라는 말에서 남북 분단의 아픔을 느낄 수 있다. / 박건태 (김화고 2)

분단 이후 폐쇄된 월정리역에는 객차부분만 남은 반쪽 기차가 있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라는 문구를 보면서 통일이 된다면 시베리아까지 대륙 횡단을 할 수 있다는 문화원 선생님의 말씀에 새삼스럽게 우리가 분단국가라는 사실을 떠올렸다. / 오현주 (김화고 1)

경원선의 간이역이었던 월정역은 남방 한계선에 초 근접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철원안보 관광의 대표적인 경유지라고 한다. 현재는 객차 뒷부분만 잔해로 남아 있는데, ‘철마는 달리고 싶다.’라는 강렬한 팻말이 민족의 한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는 듯 했다. 경원선은 일제강점기에 주민들을 강제동원하고, 당시 러시아 (구소련) 10월 혁명으로 추방된 러시아인을 고용하여 1314년 8월 강원도 내에서 제일 먼저 부설되었는데 서울에서 원산간 221.4km를 연결한 산업철도로 철원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원산의 해산물 등을 수송하는 간선철도 역할을 했다고 한다. 현재의 월정역사는 철원안보관광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1988년 복원되었다. / 최지은 (김화고 1)

▼ 월정리역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문구 ‘철마는 달리고 싶다’



철원역



▲ 일제강점기 40만명이 오가던 철원역

철원역은 철원에 살고 있는 나도 처음 듣는 생소한 곳이었다. 넓은 벌판에 철도만 놓여있는 곳으로 예전에는 거대한 환승역이 있었고, 주위에 수많은 상가들이 뻥뻥하게 들어서 있었다고 한다. 통일이 되면 철원역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성장할 수 있다고 한다. / 박건태 (김화고 2)

예전 철원역은 일제강점기 때 40만 명 정도가 오고 갔다고 한다. 그만큼 철원은 교통의 중심지이며 문화 교류가 활발한 곳이었다. 통일이 되면 철원역에서 시베리아까지 이어지는 철도가 완성된다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더욱 힘내 보자는 생각이 든다. / 김영준 (김화고 1)



함경북도민망향대



▲ 삶의 터전을 잃은 함경북도민들의 그리움이 담긴 망향대

함경북도민망향대는 전쟁 당시 삶의 터전을 잃은 함경북도민들이 철원에 내려와 고향을 그리워하며 만든 곳이다. 전망대에 올라가니 대마리가 한눈에 보였고 그들의 슬픔이 다가오는 듯 했다. 왜 관리가 소홀한 지 여쭙보니 대부분 연로해지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서 그렇다고 하신다. 얘기를 듣다 보니 수요시위를 하시던 위안부 할머니들이 생각났고, 역사의 한 부분이 지워지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현재 망향대 부근에 철도 공사가 한창인데 과거에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였던 이력을 살려 대마리를 간이역으로 경원선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 백마고지와 더불어 이곳에서도 철원의 숨겨졌던 역할을 알 수 있었다. / 안지혜 (김화교 2)





삼천봉전적비》

삼천봉전적비가 군부대 안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갔기 때문에 거기서 시간을 많이 지체했다. 2~3년 후면 갈 군대라 더 긴장을 했다. 바로 코앞에 다녀 오는 건데도 상부에 다 보고를 하고 들여보내는 것을 보고 보안이 철저하다고 느꼈다. 삼천봉전적비는 백마고지처럼 높은 봉우리에서 승리한 전투를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 정지명 (김화고 2)

처음 삼천봉전적비에 간다고 하셨을 때 어렸을 때부터 마현리에 살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어떤 곳일지 궁금했다. 그런데 마현 1리에 있던 삼천봉전적비가 화천군 상서면까지 갔는데도 보이지 않았다. 찾을 수가 없어서 다시 마현리로 돌아오는데 버스를 탈 때 항상 거치는 군부대 바로 앞에 삼천봉전적비가 있었다. 몇 발자국만 가면 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곳이었는데 군 보안상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기다리는 동안 이산가족 분들도 자신의 고향을 바로 앞에 두고 갈 수 없는 것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삼천봉전적비는 대성산 삼천봉에서 있었던 치열한 전투를 기리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한다. / 박현근 (김화고 2)

▼ 학생들이 삼천봉전적비 해설을 경청하고 있다.



三天峯地区

戦蹟碑

철원군 에필로그

32





I 참여 학생

강원도 철원군 서면 와수리 김화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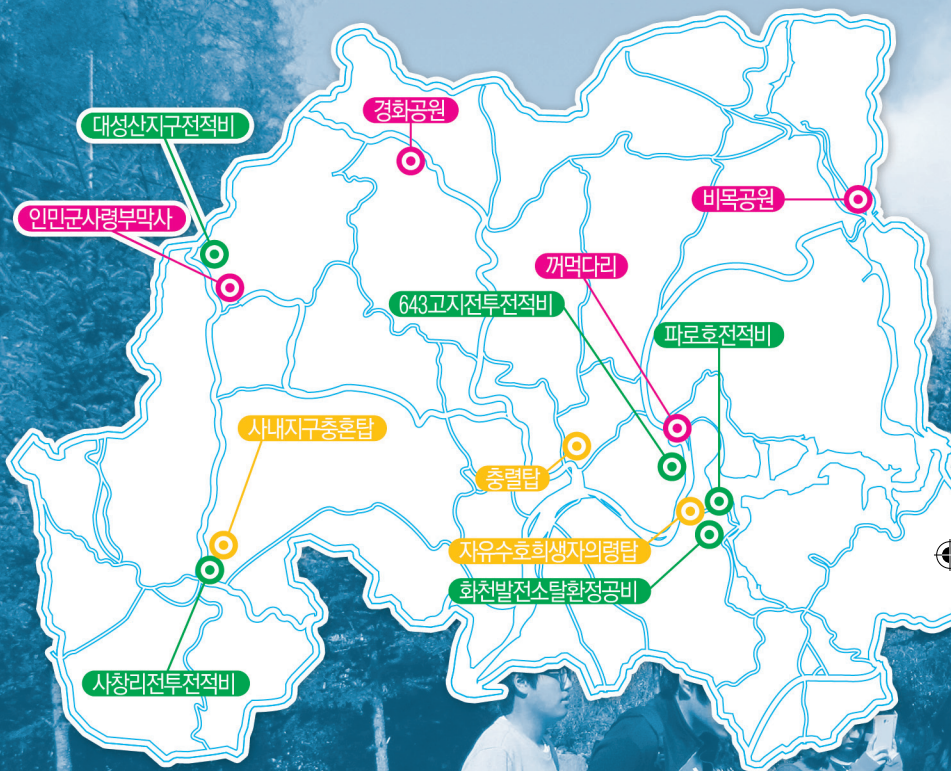
2학년 / 임 찬 희, 박 건 태, 박 현 근, 안 지 혜, 김 순 기, 정 지 명

1학년 / 김 영 준, 최 지 은, 오 현 주

I 참여 강사

김 영 규 (향토사학자) 최 병 기 (김화고등학교 모을동비 동아리 담당교사)

김 동 훈 (문화해설사)



DMZ 화천 영상 QR



大城山地
戰蹟碑

chapter 2. 화천

이름모를 비목이여

36



비목(碑木)의 고장》

초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양지 녀에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이름 모를 비목이여
먼 고향 초동 친구 두고 온 하늘가
그리워 마디마디 이끼 되어 맺혔네

궁노루산 울림 달빛 타고 달빛 타고 흐르는 밤
홀로 선 적막감에 울어 지친 울어 지친 비목이여
그 옛날 천진스런 추억은 애달퍼
서러움 알알이 돌이 되어 쌓였네

이 노래는 한명희 작사, 장일남 작곡의 〈비목〉이다. 한국 전쟁과 관련하여 가슴 아픈 울림을 주는 국민가곡이다. 비목(碑木)은 사전적으로 '죽은 이의 신원 따위를 새겨 무덤 앞에 세우는 나무로 만든 비'라고 풀이되어 있다. 이 노랫말과 노래를 둘러싼 사연은 한국 전쟁의 상처를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전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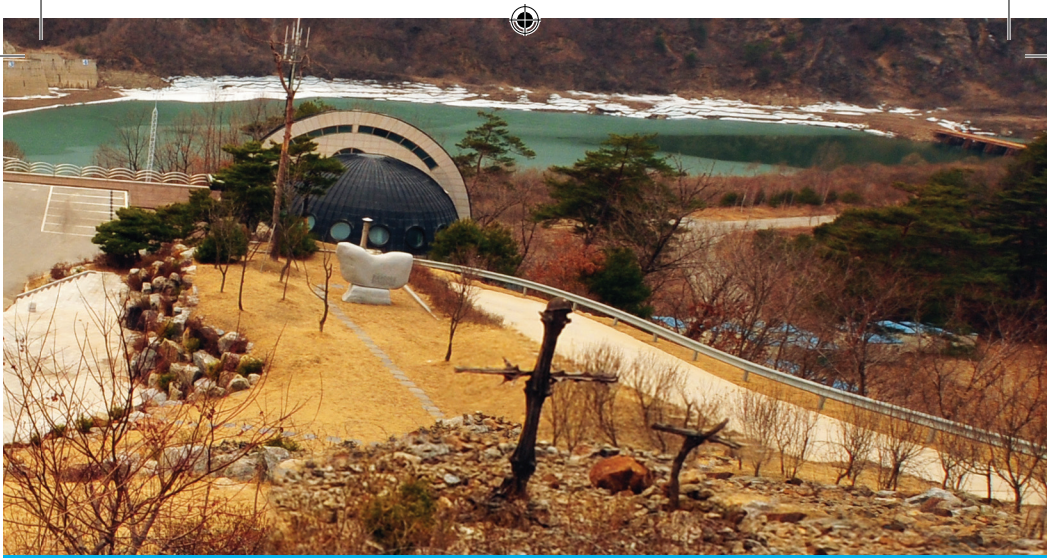
이 노랫말의 사연은 이러하다. 1964년, 강원도 화천군 백암산 계곡 비무장지대에서 순찰 중이던 한 청년 장교가 잡초가 우거진 곳에서 이끼 낀 무명용사의 돌무덤 하나를 발견한다. 그 청년 장교는 당시 25세의 한명희(전서울시립대 교수) 소위다. 한국 전쟁 당시 숨진 무명용사의 것으로 보이는 무덤 옆에는 녹슨 첩모가 있었고, 무덤 머리에는 십자가 비목(碑木)이 비바람에 썩어서 넘어갈 듯 서 있었다. 엉성한 돌무덤에는 이끼가 끼어 있고, 그 옆에는 무덤을 지키는 하얀 산목련 한 그루. 전쟁 당시 포성과 화약 냄새가 진동했을 계곡에는 붉게 물든 석양이 지고 있었다. 젊은 장교는 이러한 광경 속에서 깊고 애잔한 상념에 잠겼을 것이다.



훗날 그 장교는 동양방송(TBC)에서 PD로 일하게 된다. 평소 알고 지내던 장 일남 작곡가(한양대 음대 명예교수, 2006년 9월 별세)가 가곡에 쓸 가사 하나를 지어 달라고 부탁하자 청년은 군에 있을 때 보았던 돌무덤과 비목의 잔상을 가사로 쓴다. 젊음을 조국에 바친 무명의 용사를 기리는 가곡 〈비목〉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한국전쟁으로 깊은 계곡 양지 녘에 비바람 긴 세월 동안 서 있는 이름 모를 비목이 어찌 화천에만 있을까마는 화천이 한국전쟁 당시 전략적 요충지였던 까닭에 비목으로 상징되는 전쟁의 상흔들이 여기저기 서려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이름 모를 비목으로 청춘을 산화한 이들의 넋을 보다 숭고하게 기리기 위하여 세운 것이 바로 전적비다.

화천은 한국전쟁 때 북한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 초기에는 춘천을 공략하는 전초기지라 되었다. 그러나 국군의 9.16인천상륙작전을 고비로 전황이 바뀌면서 국군의 북진과 인민군의 남하가 엇갈리는 격심한 전쟁터가 되었다. 특히 1.4후퇴와 1951년 4월과 5월부터 격렬해진 공산군의 공세 속에서 화천은 완



▲ 전쟁에서 산화한 무명용사의 비목

전히 초토화되었다. 화전을 중심으로 벌어진 파로호 전투, 643고지 전투, 사창리 전투는 3년간의 동안 중 가장 격심했던 전투로 꼽힌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경, 북한군은 서해안의 웅진반도로부터 동해안에 이르는 38선 전역에 걸쳐 기습공격을 개시하였다. 제2사단과 제7사단은 화천~춘천~홍천을 삼각축으로 하여 각각 남진하였다. 사정이 이리하다보니 가장 북쪽에 위치한 화전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다.

화천 주민들은 6월 19일경부터 사태가 심상치 않은 것을 느꼈다. 이날부터 북한군의 대병력이 이동하여 23일경에는 적어도 2개 사단 이상이 38도선 일대에 배치되었다. 산골짜기마다 북한군이 가득 찼고, 교통을 차단했을 뿐만 아니라 농사도 금지했다. 북한군이 훈련이 끝나면 돌아간다고 말해서 주민들은 그런 줄 알았다고 한다.

3년간에 걸친 한국전쟁은 사상초유의 민족적 비극이었다. 이 땅에 수많은 전쟁의 상처를 남겼으며, 수많은 젊은이들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



▲ 화천의 전쟁 산화 영령들을 봉안하기 위한 충렬탑과 공원

충렬탑》

충렬탑은 화천군 화천읍 중2리에 세워진 탑으로 양지 바른 언덕 위에서 북한 강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서 있다. 전에는 화천읍 하리에 있었으나 장소가 좁고 불편하여 주민들이 뜻을 모아 지금 자리로 이전하였다고 한다. 조국을 지키다 돌아가신 화천 출신 육해공군 및 경찰 호국용사의 영령들을 보다 좋은 이곳으로 모셔 명복을 빌고 있다.

충렬탑은 기단 높이가 2m이고, 경내 면적은 2,000평이며, 탑신 높이는 7m이다. 1979년 10월 26일 착공하여 1980년 5월 30일 준공하였다.

“이 탑은 조국을 수호하시다 산화하신 이 고장 출신 명령들을 봉안하고자 1966년 6월 5일 화천읍 하리에 건립하였으나 그 위치가 협소하여 이의 이전을 계획하여 오던 중 화천 제 22대 이길원 군수가 군민의 뜻을 모아 이 자리에 이전 건립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주둔군 지원과 지방유지 제위의 협찬으로 1980년 5월 30일 준공되었음.”

화천군은 2008년 8월 **충렬탑**을 공원화하였고, 화천시가지와 북한강이 훤히 보이는 이곳은 화천 주민들과 여행객들의 쉼터가 되고 있다. 해마다 현충일에는 추념제가 올려진다.

▼ 충렬탑의 일부. 전쟁 당시 국군의 모습을 동상으로 세워두었다.





화천발전소탈환전공비》

화천발전소탈환전공비는 화천군 간동면 구만리 화천발전소 내에 위치해 있다. 한국 전쟁 당시 북한군에게 빼앗겼던 화천 수력발전소를 국군 제6사단이 탈환한 공을 기념하기 위하여 발전소 직원들이 세운 전공비다.

1951년 4월에서 5월은 북한군의 춘계 대공세라고 불리는데, 2차에 걸친 대공세는 유엔과 북한군 120만 명이 대결한 결전이었다. 이때 북한군이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고, 우리군은 5월 23일부터 복상을 개시하여 5월 28일에는 인제를 탈환하고 5월 28일에서 5월 30일까지 발전소를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

발전소를 되찾기 위하여 한국군 제6사단은 발전소 입구에서 적의 퇴로를 끊고 있는 힘을 다해 싸웠다. 5월 한 달 동안에만 적군 6만 5천명을 격멸하고, 연대장 1명을 포함하여 많은 포로를 잡는 등 큰 공을 세운 것을 기리는 뜻 깊은 전공비이다.

1954년 11월 1일에 건립된 이 전공비는 높이가 2.32m이다. 20평의 대지 위에 아담하게 건립되어 있어 오가는 이들의 눈길을 끈다. 전공비에 적힌 당시 화천 발전소 탈환작전 유공자는 다음과 같다.

제 6사단장 육군준장 장도영

부사단장 육군대령 임부택

참모장 육군대령 차문호

제 2연대장 육군대령 송대원

제 7연대장 육군대령 양중호

현재 전공비는 화천수력발전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화천군 간동면 구만리 1325번지에 있다. 등록문화재 제109호이며 등록일은 2004년 9월 4일이다.



| 화천수력발전소 |

화천수력발전소는 1939년 2월에 설립된 한강수력전기회사에서 단위용량 2만 7000kW의 발전기 4대를 설치할 것을 계획하고, 1944년 5월 제1호기를 준공하여 발전을 시작하였다. 같은 해 10월에 2호기도 준공하였다. 이어서 후속 발전기의 건설을 서두르던 중 3호기는 기기 설치 도중에, 4호기는 기초공사를 완료한 무렵에 8.15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때 발전소의 위치가 38선 이북에 있었는데 한국전쟁 때 우리군의 화천전투 승리로 발전소가 수복되었다.

▼ 한국전쟁 때 북한군에게 빼앗겼던 화천수력발전소의 탈환을 기념하며 세운 전공비





파로호전적비》

파로호전적비는 화천군 간동면 구만리에 위치해 있다. 구만리 고개위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낮은 능선자락이 펼쳐진다. 이 능선을 10여 분 정도 올라가면 왼쪽에 파로호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팔각정이 세워져있다. 평일에도 이 능선을 따라 올라와 팔각정에서 파로호를 바라보는 여행객들이 눈에 띈다. 능선 위 오른쪽에 높이 12m, 너비 6m의 파로호(破虜湖)전적비가 서 있다.

전적비에 새겨진 파로호 휘호는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내린 것이라고 한다. 1951년 5월 20일 중공군의 춘계 대공세 때에 국군 제6사단이 중공군을 격멸하고 파로호에 수장시키는 전과를 올렸는데, 이 보고를 받은 이승만 대통령이 화천 전선까지 직접 내려와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하며 파로호'라는 친필 휘호를 내렸다.

이 비를 세운 사람은 1955년 10월, 당시 제6사단장 육군준장이었던 이창정 장군이다. 파로호전적비에는 한국군 제6사단의 상징인 청성 마크가 함께 새겨져 있어 승리의 감격과 국군의 용맹성을 후세에 전하고 있다.

▼ 중공군의 춘계 대공세를 막아내고 파로호에 수장시킨 전투를 기념하는 전적비 / ▶ 파로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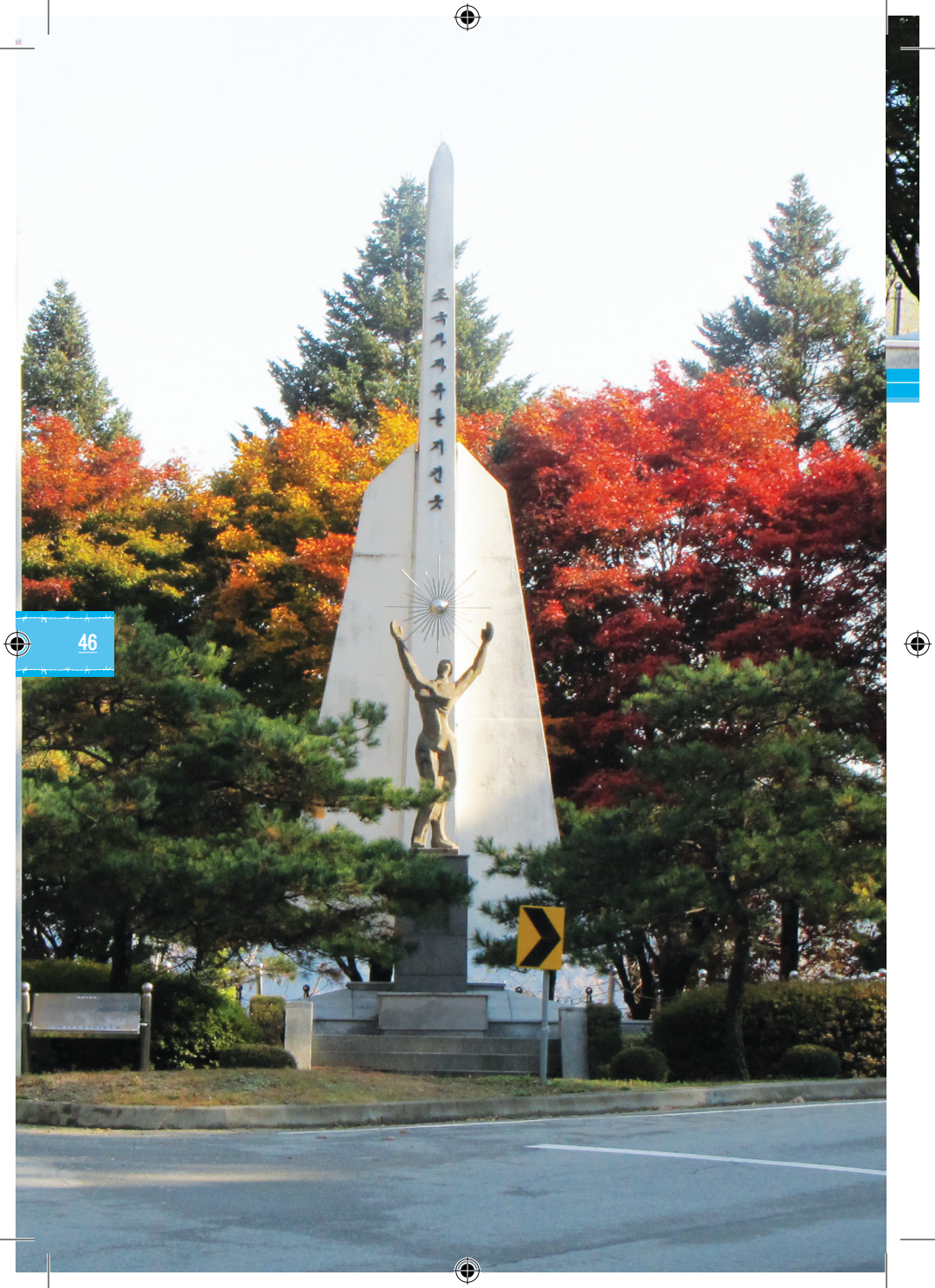


| 파로호 |

· '파로호(破虜湖)'는 1944년 완공된 화천댐으로 인해 생긴 인공호수다. 38.9km²의 면적에 수심이 166m에 달하며 일산(日山 · 1190m)과 월명봉(月明峰 · 719m) 등 높은 산에 둘러 있어 호수의 경관이 아름답다. 파로호에는 잉어, 붕어, 메기, 쏘가리 등 담수어가 풍부해 낚시터로도 각광받고 있다. 8.15 광복 직후에는 38선으로 막혀있다 한국전쟁 때 수복되었다. 원래 '구만리 저수지'로 불렸었는데, 한국전쟁 이후 화천댐 사수를 위해 국군과 유엔군이 중공군 수 만명을 수장시키면서 오랑캐를 격파한 의미를 담아 '파로호(破虜湖)'로 거듭났다. 1951년 5월 육군 제6사단과 미8군은 제3차 반격계획에 의해 유엔군의 대규모 항공 폭격으로 구만리 저수지 일대에서 북으로 철수하는 중공군 10 · 25 · 27 등 3개 연대를 몰살시켰다. 특히 6사단 5연대는 5월 28일 하루 동안 중공군 3만8000여명을 사로잡는 큰 승리를 거두었다.

· 당시 6사단장인 장도영 장군은 “계속되는 공격으로 적군의 사기가 크게 떨어져 아군 소대 병력이 후퇴하는 적군 대대 병력을 무더기로 생포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며 “파로호 주변과 대이리, 풍산리 일대가 중공군의 시체로 뒤덮여 아군이 불도저로 시체를 밀어 내면서 전진해야 했다”고 회고했다.







◀ '조국과자유수호전적비' / ▲ 학생들이 '조국과자유수호전적비'의 비문을 읽고 있다.

조국과자유수호전적비》

한국전쟁 때 학도의용군은 육군 제6사단, 해병 제1연대 장병들과 합세하여 중공군 3개 사단 3만여 명을 무찌르고 파로호에 수장시키는 등 혁혁한 공을 세우고 전사하였다. **조국과자유수호전적비**는 무명의 학도병들이 마지막으로 전우들에게 남긴 말을 영원히 추모하기 위해 1975년 11월 26일 화천군 간동면 구만리에 세워진 것이다. 전적비의 비문은 노산 이은상이 지었던 '조국과 자유를 지킨 곳'이다. 아홉 글자의 한글 휘호는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글씨다.

47

비문 앞면에는 “길손이여 자유민에게 전해다오. 우리는 겨레의 명령에 복종하여 이곳에 누웠노라. 이 글은 여기서 전사한 학도의용군의 유언이었거니와 지난 날 한국동란 때 1951년 봄 4월과 5월에 걸쳐 용감한 우리 육군 제6사단과 해병 제1연대 장병들이 유엔군의 좌우 지원을 받으며 치열한 전투를 감행하여 중공군 제 10, 25, 27군들을 이곳에 완전히 수장시켜 고구려 을지문덕의 살수대첩과 같은 큰 전과를 거두고서 조국과 자유를 수호하여 포화 속에서 겨레를 건졌기에 우리는 한 무명의 학도병이 전우에게 남긴 이 말을 기리기 위해 이 비를 세운다.”라고 적혀 있다.

화천군 6.25전적비 건립위원회에서 1975년 11월 14일에 세운 이 전적비는 전체 높이 12m로 기단 높이는 1단 0.3m, 2단 0.1m이다.



▲ 643고지전투전적비를 둘러보는 학생들

643고지전투전적비 >>

643고지전투전적비는 화천군 대이리 수리봉 자락에 '비목' 처럼 쓸쓸하게 서 있다. 꺼먹다리를 지나 왼쪽 야트막한 산자락을 올라가면 치열한 격전의 흔적이 전적비로 남아있다. 한국전쟁 당시 철원과 화천은 철원평야와 화천수력발전소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요충지였다. 식량 공급과 전기 공급은 전쟁뿐만 아니라 전후 복구에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화천댐이 당시 북한강 수계의 주력 댐이었고, 전력 생산량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 중요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화천에서 치열한 격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643고지와 수리봉지구 역시 댐과 발전소를 둘러싸고 치열한 격전이 벌어진 곳이다. 1951년 봄 수리봉지구에서는 국군 제6사단과 미군 제17연대가 대규모 인원을 동원하여 중공군과 격전을 벌여 643고지를 사수했다. 2만1550명의 적을 사살하고, 2617명의 적을 생포하였으며, 야포 86문 · 기관총 및 소총 2695점 · 트럭 4대 · 실탄 1트럭 53상자와 349필의 군마를 노획하였다.



▲ 643고지전투전적비를 돌아보고

화천읍에서 동북방으로 약 7km가량 떨어진 대이리에 세워진 이 전적비는 국군 제6사단과 미군 제17연대가 합동작전으로 중공군 3개 사단을 물리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2군단에서 1957년 3월 15일에 건립하였으며, 그 높이는 2.25m이다.

“잊지 못할 6.25 공산적군들을 한줄기 거센 용맹으로서 뒤엎고 온 겨레의 숨을 가쁘게 하던 무렵의 중동부지구전투 잊지 않으면 아니 될 이 수리봉에 중공군 제20군 예하 58, 60, 151사단이 완강히 덤벼들었다. 이 격전에서 우리 제6사단의 장병들은 미 제17연대와 합세 적의 포연탄우를 무릅쓰고 백병전을 감행하여 이 대적을 물리치고 이곳에 자유의 깃발을 드높이 올렸으니 어찌 그 무훈을 장하다 하지 않으랴. 여기서 장하게 싸운 전우들의 빛나는 충성과 감투정신을 만대에 전하며 아울러 장하게도 이곳에서 피를 뿌리고 산화하신 호국 영령들에게 명복을 빌고자 이 돌을 깎아 기념으로 세우노라.”



▲ 되찾은 사창리를 기념하기 위한 전적비

사창리전투전적비》

사창리전투전적비는 1951년 4월 10일 국군 제6사단 장병들이 중공군의 침공을 맞아 열악한 상황 속에서 치열한 전투를 치렀던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것이다. 한국전쟁 당시 육군 제6사단은 중공군 수중에 있던 사창리를 탈환하기 위하여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중공군의 제1차 춘계공세(1951년 4월) 당시 국군 제6사단이 사창리와 화악산 일대에서 중공 제20군 예하 3개 사단(제58, 제59, 제60사단)과 제40군 예하 제120사단 등 4개 사단의 집중 공격을 받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3일 동안에 걸쳐 싸운 방어전투이다. 그 결과 사창리를 되찾은 전과를 기념하고, 그 혁혁한 무훈을 길이 알리고 보존하기 위해 세운 기념비가 **사창리전투전적비**다.

국군 제9사단이 1957년 7월15일 사창초등학교에 건립하였고, 1978년에 육군 이기자 부대와 화천군이 지금의 자리인 사창리 덕고개로 옮겨 새로이 단장하였다. **사창리전투전적비**는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산 6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피에 굶주린 이리떼와 같이 침공하는 북쪽 오랑캐에 대한 큰 반격이 없었던
들 이 날의 이곳이 있었을 것인가. 피땀에 쌓인 그 장병들의 혈투사는 불후의
무공으로서 길이 남을 것이다. 이 전투에서 용감무쌍한 국군 제6사단 장병들의
오직 필승의 투혼과 국토수호의 일편단심 아래 끝끝내 싸우다 쓰러진 전우들의
고귀한 목숨을 희생하여 얻은 것이다. 여기에 그 장한 기백과 신념을 찬양하고
그들의 명복을 빌어 자손만대에 길이 그 훈공을 전하고자 이 작은 돌을 세운다.
단기 4290년 7월 15일 제9사단 세움.”

사내지구충훈탑》

사내지구충훈탑은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450번지 명월초등학교 정문 바로
앞에 세워져 있다. 사내지구는 6.25 당시 격렬한 전투지로 국군 및 유엔군은 물
론 적군까지 무수히 전사한 곳이다. 이에 민·군·관이 정성과 성의를 모아 이
곳에 충훈탑을 건립하였다. 1981년 6월 25일에 건립되었고, 당시 사단장은 정
순현 소장이다.

▼ 충훈탑의 비문을 읽어보는 학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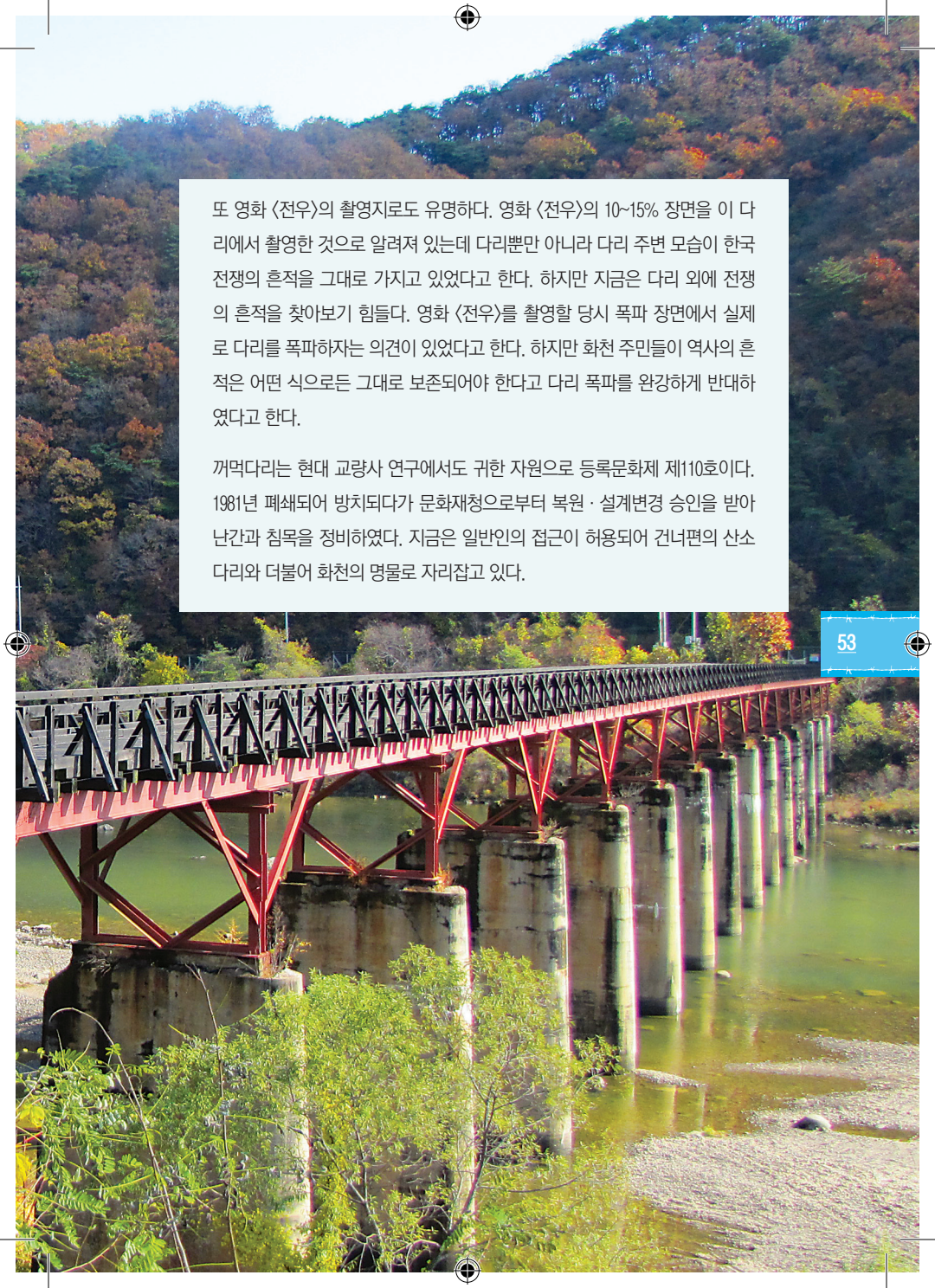
꺼먹다리

! 꺼먹다리 !

꺼먹다리는 1945년 화천댐과 발전소가 건립되면서 세운 폭 4.8m, 길이 204m의 철골과 콘크리트로 축조된 다리다. 교량 상판이 검은색 콜타르여서 꺼먹다리로 불리는데 이는 나무의 부식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시멘트로 된 기초 공사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세우고, 교각은 북한과 소련이 세웠다. 다리 상판은 한국전쟁 이후 화천군에서 놓았다. 꺼먹다리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쳐 현재를 관통하는 역사적 의미가 들어 있다.

다리 공사에 참여한 나라도 일본, 북한, 소련, 우리나라 등으로 다리 하나가 아픈 근현대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또 영화 <전우>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영화 <전우>의 10~15% 장면을 이 다리에서 촬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리뿐만 아니라 다리 주변 모습이 한국 전쟁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다리 외에 전쟁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 영화 <전우>를 촬영할 당시 폭파 장면에서 실제로 다리를 폭파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화천 주민들이 역사의 흔적은 어떤 식으로든 그대로 보존되어야 한다고 다리 폭파를 완강하게 반대하였다고 한다.

꺼먹다리는 현대 교량사 연구에서도 귀한 자료로 등록문화제 제110호이다. 1981년 폐쇄되어 방치되다가 문화재청으로부터 복원·설계변경 승인을 받아 난간과 침목을 정비하였다. 지금은 일반인의 접근이 허용되어 건너편의 산소 다리와 더불어 화천의 명물로 자리잡고 있다.



▲ 전쟁 당시 사용되었던 인민군사령부 막사

I 인민군사령부 막사I

화천군 상서면(上西面) 다목리(多木里)에 있는 건물로 옛 인민군사령부 막사 건물이다. 1945년에 지은 것으로 추정되며, 2002년 5월 31일 등록문화재 제27호로 지정되었다. 국방부 소유이며 현재 화천군이 관리한다.

단층으로 되어 있는 이 건물은 한국전쟁 당시 화천과 철원 일대를 관할하던 인민군사령부 막사로 사용되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국군의 피복 수선소로 이용되기도 했고, 10여 년 전에는 군인들의 임시 휴양시설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방치되어 황량한 모습으로 덩그러니 있다.

31.3X1.2m 크기의 직사각형 평면 화강석과 시멘트로 마감하여 튼튼한 벽체를 유지하고 있으며, 내부는 당시 인민군 시설의 면모와 생활상을 짐작해 볼 수 있게 한다. 국내에서 희귀하게 보존되는 군사시설이다.

대성산지구전적비》

대성산지구전적비는 한국전쟁 때 대성산지구 전투 장병들의 영웅적인 전공을 높이 찬양하고 조국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의 넋을 추모하면서 그 위훈을 자손만대에 길이 전하고자 세운 비다. 1983년 10월 1일에 화천군에 있는 육군 제8305부대에서 건립했으며, 보병 제15사단(6685부대)에서 관리하고 있다.

대성산지구 전투는 1951년 6월 9일 국군 제2사단 2, 3대대가 1041고지에서 활동 중인 중공군 제20군 58사단 177연대의 적군 병력을 섬멸하기 위해 벌였던 전투다. 당시 국군은 선제공격을 개시해 1041고지와 신월동 및 865고지를 탈취했다.

6월 14일까지 6일간 계속된 이 전투를 통해 국군은 승양고개, 삼천봉, 비로봉 일대를 확보해 김화지역을 사수할 수 있었다. 적사살 453명, 생포 19명, 55점의 무기를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아군의 피해는 전사 38명, 전상 123명에 그쳤다. **대성산지구전적비**는 비지정문화재로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에 있다.

▼ 한국전쟁 당시 대성산지구 전투 장병들의 공을 치하하고 넋을 추모하기 위한 전적비



심일 소령 동상》



▲ 심일 소령 동상

심일 소령은 함경남도 단천 출생으로 서울대 사범대를 2년 수료하고,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해 1949년 5월 육사 8기 소위로 임관되어 춘천에 배치되었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심일 소령(당시 소위)이 소속된 6사단 정면에는 공격 당일 춘천 점령의 임무를 부여받은 북한군 2군단 이하 2사단이 배치되어 있었다. 남하하는 북한군의 SU-76 자주포가 아군의 대전차포를 맞고도 포탄을 쏘

아대며 계속 전진해오자 5명의 특공대를 편성해 수류탄과 화염병을 들고 적의 포탑 위로 돌진하는 육탄공격을 감행한 끝에 북한군 자주포 3대를 격파하는 전공을 거두었다.

이러한 전공 사실은 순식간에 전군에 전파되어 북한군의 전차 및 자주포에 대한 공포심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되었으며, 모든 전선에서 육탄공격으로 적의 전차를 파괴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그의 영웅적인 행동은 개전 초기 북한군의 남진을 지연시켜 국군이 한강 방어선을 구축하고 유엔군이 참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후에도 심일 소령은 충북 음성·경북 영천 등의 전투에도 참전했고, 1951년 1월 26일 제7사단 수색중대장으로 있던 강원도 영월에서 북한군과 교전 중 총에 맞아 전사했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적을 기려 1951년 10월 위관급 장교로는 최초로 태극무공훈장과 함께 1계급 특진(소령) 추서하였다.

경화공원》

정경화 소령은 육군 7사단 GOP중대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1977년 6월21일 7사단 중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작전 중에 지뢰를 해제하다가 부식된 안전핀이 부러진 폭발 순간에 자신의 몸으로 지뢰를 덮어 중대원 22명의 목숨을 구했다. 부하들의 희생을 막고 자신은 산화한 고인을 기리는 추모행사가 매년 6월 21일 경화공원에서 치러지고 있다. 특히 백암산 패밀리와 육군 제7사단은 순직 현장 인근에 순직비를 건립하고, 정 소령의 이름을 딴 경화공원을 조성하여 매년 추모행사를 갖는다.





짧은 글, 긴 여운》

화천에 살면서도 전공비, 자유수호탑, 643고지전투전적비, 충훈탑 등이 있는 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번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꺼먹다리 얘기다. / **이은정 (화천정보산업고 2)**

화천이 아닌 지역의 문화 유적은 많이 다녔지만, 정작 화천은 많이 보지 못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화천의 많은 것을 보고 느껴서 좋았다. 그러면서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되었고, 친구들과 재미있는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더 좋았다. / **최정민 (화천정보산업고 2)**

인민군사령부 막사를 직접 들어가 봤는데 군사시설이 아직까지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보니 대단하다고 느껴졌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채 아무 말 없이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우뚝 서 있는 꺼먹다리에는 남다른 역사가 담겨져 있었다. / **강은혜 (화천정보산업고 2)**

처음에 재미없고 지루할 것 같았는데 내 고향 화천의 역사가 담긴 것들을 보니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이번에 기념비들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 화천사람들이 고향을 지키기 위해 싸운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분들을 생각하니 너무 감사했고, 그분들을 닮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화천에 살면서도 이런 것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싶다. / **오영진 (화천정보산업고 1)**

영화촬영을 했다는 꺼먹다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작가 이외수 선생님의 작품을 담은 도서관에도 갔다.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화천의 모습을 보게 되어서 좋았다. 내년에도 이런 기회가 온다면 화천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고 싶다. / **유호윤 (화천정보산업고 1)**



〈참고문헌〉

화천군지

韓國戰爭史 5(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1981)

韓國戰史(合同參謀本部, 1984)

韓國戰爭 要約(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1986)

戰跡記念物便覽集(國防軍史研究所,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319069>

DMZ

화천군 에필로그

60





61



| 참여 학생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하리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2학년 / 강은혜, 최정민, 이은정

1학년 / 유호윤, 오영진

| 참여 강사

함복희 (강원대학교 국문학과) 유종현 (화천문화원)

강경섭 (화천인터넷방송)



DMZ 양구 영상 QR



피의
稜線
戰鬪
戰跡
碑

chapter 3. 양구



태극기 휘날리던 피의 능선

64



피의능선》

양구는 DMZ(비무장지대)를 접하고 있어 북한군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지역 중 하나이다. 그만큼 6.25전쟁 당시 치열한 접전이 많이 일어난 곳이기도 하고, 어느 지역에서도 볼 수 없었던 해병대의 육상전이 일어난 곳이기도 하다. 우리는 양구지역의 전투전적비를 돌아보며 그 당시 치열했던 전투상황들을 하나하나 쫓아가 보기로 했다.



피의능선전투전적비》

양구는 피의능선전투 외에도 다른 격전들을 수없이 거쳐 온 비극적인 역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다. **피의능선전투전적비**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는 편치불전투가 벌어졌던 해안분지가 위치해 있다. 편치불은 한국전쟁 당시 중군 기자가 가칠봉에서 내려다 본 그 모습이 편치불과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편치불전투는 한국전쟁이 교착전 단계로 접어든 직후에 국군과 미군이 양구 북방의 해안분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국과 미국 해병들은 불리한 조건을 무릅쓰고 치열한 공방 끝에 고지를 점령했으며, 역시 수많은 희생이 있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한 국군은 더 진격하여 유리한 지형을 확보할 수 있었다.

*“전우여! 피로써 되찾은 이 땅 다시는 더럽히지 말자
그리고 소중히 간직하자....”*

▼ 양구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격전 '피의능선전투'



여기는! 한국전쟁 최대의 격전지 "피의능선"

때는 1951년 8월 18일부터 22일, 한국군 제 5사단 36연대가 미 제 2사단에
배속되어 미군 전차·포병 9개 대대와 미공군 및 해군함포사격을 지원받아
42만여발의 포탄이 작열한 가운데 북한군 제2군단 및 제 5군단 산하
제 6, 12, 13, 27사단과 5일간의 치열한 공방전에서 적군 1,480여명을
사살하고 70명을 생포하며 빼앗은 고지. 계곡과 산등성이 곳곳을
탄흔과 철흔으로 물들어진 피의능선 전투를 기념하고 이 전투에서
나라와 거세를 위하여 용감히 산화한 139명 옛 전우들의 넋을 추모하고
위로하기 위해 1980년 11월 11일 백두산 부대에서 세웠던 이 비를
보완하여 현 위치에 새로이 세우나니 넓이여 편히 쉬소서.

전우여! 피로써 되 찾은 이 땅

다시는 더럽히지 말자 그리고 소중히 간직하자

바로 저기 금강산이 보이지 않는가? 이곳 딛고 백두산까지.

▲ 피의능선전투전적비 비문

피의능선전투전적비에 쓰인 말이다. 이 짧은 한 마디가 치열했던 한국전쟁의 비극과 힘들게 지켜낸 우리 땅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특히 한국전쟁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비문이다. 사실 기성세대에 비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전쟁이라는 것 자체를 멀게 느끼기 때문에 안보의식이 부족한 편이다. 과거처럼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키우는 반공교육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많은 학생들이 한국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도 모르는 현재의 상황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최근 벌어진 노크 귀순과 같은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안보 의식은 현재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안분지나 피의능선전투전적비와 같은 전쟁 관련 유적지들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것들을 일깨워준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를 가진다. 한국전쟁에서 나라를 위해 싸우다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들이 힘들게 지켜낸 우리 국토를 소중히 했으면 한다. 또 이런 전투 유적지들에 대한 관리와 홍보가 꾸준히 이루어져 다시는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할 슬픈 역사로 영원히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 김지윤 (강원외고 1)

| DMZ story, 바위가 말을 걸다...



피의능선은 한국전쟁 최대 격전지이자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극중 장동건이 전사했던 장면의 배경으로 유명하다. 1951년 8~9월 국군 제5사단과 북한군의 전투로 얼룩졌던 이곳의 상황을 미국 종군기자가 '피의능선'으로 보도하며 이름 붙여지게 되었다.

1980년 백두산부대에서 건립하고, 2001년 양구군과 백두산부대에서 보수·정비한 **피의능선전투전적비**에는 그때의 상황과 앞으로의 다짐, 그리고 전사한 139명 장병들의 넋을 기리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이름 탓일까. 지금까지 풀한 포기 남아있지 않은 황량한 황토 언덕으로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본 피의능선은 그 이름이 무색하게 푸른빛을 자랑하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나무가 울창한 그 곳이 오래전에는 수많은 장병들이 이념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며 싸웠던, 그래서 그 피로 인해 능선이 붉게 물들었던 곳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만약 전투전적비가 근처에 있지 않았다면, 나는 이곳을 양구에서 가장 경치 좋은 곳 중 하나쯤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동안 한국전쟁은 그저 60년 전 우리나라에 있었던 한민족의 비극이라고만 생각했었다. 전쟁의 아픔을 절절히 느끼기에 나는 너무 어린 요즘 학생이었다. 그런데 선생님의 설명을 들은 후, 한국전쟁을 생각하면 조금은 아련하고 쓸쓸한 느낌이 든다. 그리고 웬지 이 느낌을 잊으면 안 될 것 같다.

/ **최영은 (강원외고 1)**



‘피의능선’이라는 단어는 중학교 사회시간에 많이 들어보았던 주제여서 이번 탐사는 다른 때보다 더 관심이 많았다. 피의능선전투는 국군의 공격으로 시작되었고, 6.25전쟁 중 엄청나게 치열했던 전투로 꼽힌다. 10여 일의 전투 끝에 능선 점령에 성공하였지만, 바로 그 다음날 북한군에 탈취 당했다. 그 후 국군과 미군연합의 끊임없는 공격으로 결국 적의 방어진지를 점령하게 되었다.

피의능선전투전적비에서 선생님의 지도로 묵념을 한 후, 우리는 양구하면 떠오르는 편지봉 지형을 보러갔다. 1년 전 가칠봉에서 본 편지봉 지형보다는 크기가 작았지만 멋있었다. 또한 해안면의 지형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마치 막으로 전쟁기념관에서는 탱크와 장갑차 같은 모형물이 있어서 안에 들어가 보기도 했다. 생각보다 작은 대포가 몇 천 미터나 날아간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했다. 이번 답사를 하면서 조상들의 애국정신을 보며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전쟁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느낄 수 있었다. / **함석범 (강원외고 2)**





양구의 무더운 더위가 한 걸음 물러가고, 가을이 다가오기 시작하던 9월 말 우리는 마지막 여정을 시작했다. 그동안 보았던 다른 전투 전적비와는 달리 전적비의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정리도 잘 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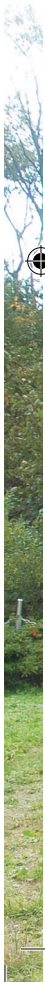
피의능선전투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전투중 하나이다.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형(장동건)과 동생(원빈)이 재회하게 되는 전투가 바로 피의능선전투다. 6.25전쟁 중 가장 치열했던 전투로 국군과 미군은 1개 연대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북한군은 1개 사단의 병력 손실을 입을 정도였다고 한다.

전투가 끝난 뒤에 능선을 물들일 정도로 사상자가 많았기 때문에 피의능선전투라고 불리게 되었다는데, 실제로 전적비가 있는 곳에 가보니 지금은 주변의 능선들이 모두 나무들로 무성하다.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6.25전쟁 당시에 목숨을 바쳐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앞장섰던 그분들의 노고를 기리면서 묵념을 했다. / 허진우 (강원외고 2)

| 피의능선전투전적비 |

· 양구군 동면 월운군 월운저수지 옆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피의능선전투전적비**는 피의능선전투를 기억하고 희생 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비(碑)로, 1980년 11월 11일에 세워진 것을 2001년 6월 2일 육군 제21사단이 보완하여 새로 세운 것이다.

· 피의능선전투는 한국군 제5사단 36연대가 미군 제2사단에 배속되어 1951년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42만여 발의 포탄이 쏟아지는 가운데 치른 격전이다. 이 전투는 치열한 공방전 끝에 국군의 승리로 끝났지만, 양측 모두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피의능선(bloody ridge)이라는 이름은 중군기자들이 수많은 사상자로 인해 능선에 피가 흘러넘친 것을 보고 붙인 것이라고 한다. 피의능선전투는 '계곡과 산등성이 곳곳을 탄흔과 혈흔으로 물들어진 피의능선 전투...' 라는 비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민족이 거쳐 온 슬픈 역사들 중 하나이다.

▼ 피의능선전투전적비 앞에 학생들이 모였다.





▲ 공수리순직지비의 설명을 듣는 학생들

공수리순직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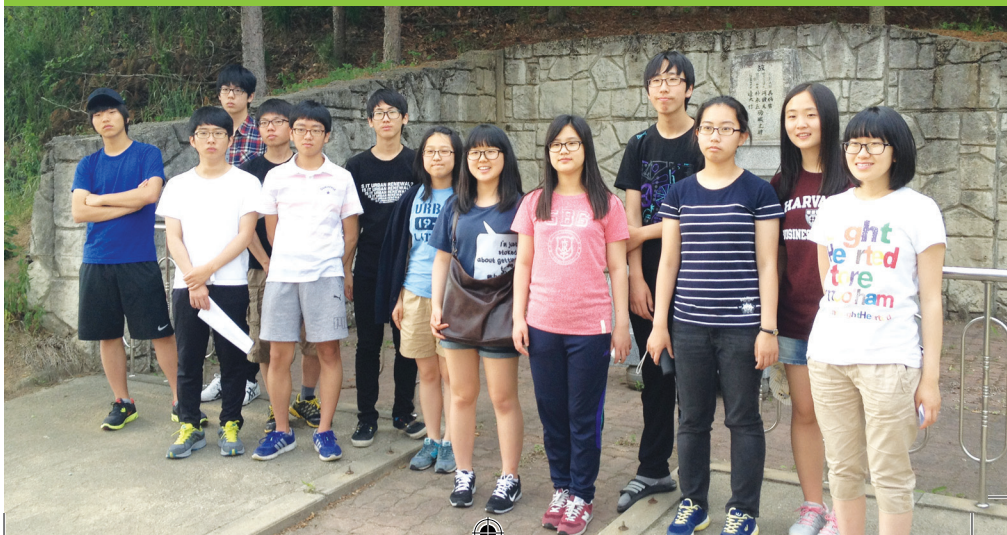
1951년 8월 양구지역에서 국군과 인민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국군 제7사단은 양구읍의 정림리를 거쳐 동수리에 다다르게 되었다. 작전명령은 파로호를 도강하여 군량리를 거쳐 방산을 지나 문등리까지 진격하라는 것이었다. 지금의 순직지비가 세워져 있는 그곳에는 적군이 진을 치고 있었고, 공수리의 건너편 쪽에서 작전명령을 받은 국군은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도 도강을 감행하기 시작하였다. 호수의 중간쯤에 도착했을 때 대위 오병철과 대원들이 탄 보트가 적군에 포탄을 맞아 전복되었다. 대위 오병철, 이등중사 하종원, 이등중사 박영오, 이등중사 변태행 등 대원들은 헤엄쳐 나와서 장렬하게 대항하다가 전사했다.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생존자들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매년 이곳을 찾아와서 참배하였다고 한다. 이 이야기가 전해져서 육군 제7사단 공병대가 전사한 4인의 이름을 새겨 순직지비를 세웠다.

처음 **공수리순직지비**를 봤을 때는 차들도 별로 다니지 않는 길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모습이 초라해 보였다. 비록 길모습은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들은 그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우리나라를 위해 싸워준 군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평소 무심코 지나치는 비석과 같은 문화재들을 깊이 있게 조사하진 못하더라도 그 내용을 이해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 **강도영 (강원외고 2)**

Ⅰ 공수리순직지비 Ⅰ

-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225-2 도로변에 **공수리순직지비**가 세워져 있다.
- ⋮ 영어로는 'Monument to the war dead' 라고 한다.
- ⋮ 6.25전쟁 당시 관내에서 파로호 상류지역(양구읍 공수리, 고대리)의 전투가 가장 치열했는데 이 때 전사한 국군 용사들을 추모하기 위해 1951년에 육군 제7사단 야전공병대에서 건립하였다. 그러나 몇 십 년이 흘러 비석이 노후화되어 1963년 5월 25일 보병 제2사단이 재건립하고, 2000년 11월 25일 양구군에서 현재와 같이 새롭게 단장하였다.

▼ 전적지 답사에 참여한 학생들





백석산지구전투전적비》

백석산지구전투는 1951년 8월 18일부터 10월 28일까지 방산면 백석산에서 일어난 전투이다. 1951년에는 남북이 서로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형국이었다. 특히 양구군에서 벌어진 전투는 서로 조금이라도 유리한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밀고 당기기의 연속이었다. 궁극적인 목표는 편치불을 차지하는 것이었고, 유엔군과 국군의 작전은 도솔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백석산지구전투도 이러한 전투들 중에 하나이다. 우리는 이 전투를 위해 희생된 목숨들을 위로하기 위한 **백석산지구전투전적비**를 답사하였다. 전적비의 규모가 매우 거대하거나 화려한건 아니었지만, 그 비석 속에 한자로 뚜렷하게 새겨진 '백석산지구전투전적비'라는 열 글자를 보니 가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우리 국군장병들의 뜨거운 애국심과 용감한 희생정신을 마음 깊이 느낄 수 있었다.

백석산지구전투에서는 아군 1423명과 적군 1561명이 부상당하거나 전사하였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희생될 만큼 고지의 중요성은 컸고, 그 주인도 계속 바뀌었다. 전투가 쉽게 풀리지 않자 국군은 미군과 함께 3단계로 작전을 나누어 실시하기로 했다. 치열한 전투 끝에 휴전협정이 재개되어 백석산 일대의 전투가 종료되었고, 사실상 오늘의 휴전선을 결정하게 된 마지막 전투였다고 볼 수 있다.

수많은 분들이 목숨을 바친 6.25전쟁에 대해 우리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또 알고 있다 하더라도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실제로 언론기관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역사인식능력을 평가하였는데 대학생의 54%가 6.25전쟁의 연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 6.25전쟁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데 수많은 전투 중 하나인 백석산지구전투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적어도 자기 자신과 가족들이 살고 있고, 나중엔 후대에게 물려줄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정도는 정확히 알고 이해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국토의 정중앙이라 불리는 양구는 다시 말하면 과거 비극적 역사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다.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고 수많은 목숨이 희생되었다. 우리군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의 연합군들의 목숨도 희생되었다. 그들은 낯선 나라 국민들의 자유를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바쳤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가는 끔찍한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겠다.

/ 곽광수 (강원외고 2)

▼ 유리한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밀고 당기기의 중심에 있던 땅, 백석산자구를 방문했다.



6.25참전용사 인터뷰》

9월 7일과 14일, 하루에 2시간씩 인터뷰를 진행했다. 두 분 모두 6.25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이었다. 처음 인터뷰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이 떨렸는지 모른다. 진짜 전쟁은 어땠을지, 과연 '태극기 휘날리며'와 같은 전쟁영화와 비슷했을지... 아! 특히 한국전쟁영화는 북한군과 남한군의 애정을 다룬 것이 많은데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가 궁금했다.

▶ 첫 번째 이야기, 홍현달 어르신

어떻게 6.25전쟁에 참전하시게 되었나요? 당시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홍현달 어르신 : 나는 이북에 있는 운진에서 태어났어. 1945년, 해방이 되었을 때 나는 15살이었어. 하지만 아버지가 공산당에 워낙 반대하시는 분이어서 우리 가족은 1년 뒤에 춘천으로 월남을 했고, 나는 19살에 '대한 국군 1기생'으로 군대에 들어갔어. 그렇게 국군으로서 활동하던 도중에 1950년 6.25전쟁이 발발했지. 당시 홍천에서 38선 경비

를 하고 있었는데 경험있는 일선 부대를 후방으로 빼라는 명령이 내려졌지. 그래서 사단이 용산으로 옮겨지고, 이후 전체 휴가가 내려졌어. 나는 23일에 춘천으로 내려갔지.

비가 엄청 오던 25일 일요일 새벽, 배후령에서 갑자기 신호탄이 막 올라가더니 대포소리가 나더라고. 다행히 춘천 시내까지는 포탄이 날아오지 않았지만 이미 인민군은 38선을 넘어 총공격을 하고 있었어.



▲ 6.25 참전용사 홍현달 어른신과의 대화에 학생들이 귀 기울이고 있다.

급히 서울로 가려했지만 가평이 이미 인민군에게 빼앗긴 상태라 어쩔 수가 없었어. 그래서 당시 군인정신이 투철했던 나와 휴가 장병들 8명은 양평경찰서에 가서 무기를 달라고 했지. 우리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무척 노력했어. 당시 북한은 철저한 남침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 남한은 휴가를 보내고 아주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던 터라 너무나도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 국군 10만, 북한군은 20만이었지. 대포, 기관총, 호추기(제트기)... 남한은 그야말로 이수라장이었지.

나는 정말 많은 전쟁에 참여했어. 특히 양구에서 많이 싸웠지. 군인정신. 이거 하나로 내 몸을 불살랐어. 인민군은 양구에 1950년 10월 6일에 들어왔어. 백석산, 도솔산, 배후산, 까치령 등의 고지전투를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지. 고지를 하나 점령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고위 장관들 빼고는 거의 죽다시피 했지. 양구에서 벌어진 1951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전투들로 현재 전선이 만들어지게 되었어. 이후 약 2년간 계속 전투를 했지. 6개월 동안 양구를 차지하기 위해 약 2750명의 전사자가 났어. 하루에 20만발의 포탄이 떨어졌고, 부상자의 수 또한 엄청났어.



계산해보면 나는 3년 1개월 동안 전쟁을 한 셈이야. 요즘 사람들은 현대 생활의 편안함에만 익숙해져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 나는 너희들이 다른 것보다 안보에 대해 좀 더 신경을 쓰고 군인들의 노고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단다.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와 같이 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가 많은데, 실제와 비슷하나요?

홍현달 어르신 : 비슷하긴 해도 영화는 영화란다. 과장된 요소들이 많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죽고, 보따리 지고 피난 가는 모습은 좀 비슷하구나. 또 영화 ‘웰컴투동막골’ 처럼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전쟁 중에 썩튼 남한군과 인민군의 애정을 그린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군인들 사이에서 그런 식으로 접촉하는 일은 거의 없어.

전쟁의 긴박함 속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단다. 물론 인민군과 남한 여성의 사랑과 같은 일은 있었으리라고 생각해. 전쟁 중에도 손잡고 이북, 이남으로 건너가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었어.

전쟁 후유증은 없으셨나요?

홍현달 어르신 : 전쟁 후유증은 개인의 차이인 것 같아. 어떤 사람들은 전쟁의 충격으로 죽을 때까지 고통 받으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 반면 나처럼 후유증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

전투를 하도 많이 해서 죽음의 슬픔과 전쟁의 잔인함에 둔감해지기도 했고, 무엇보다 동료들이 죽어도 슬퍼할 시간이 없었어. 끝없이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긴장을 풀 수가 없었고, 또 슬퍼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기도 전에 또 다른 전투가 발발하곤 했어.



어르신께서는 주로 전쟁 당시의 상황에 대해 말씀해주셨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뭐든지 물어보라고 호탕하게 말씀하시던 모습이 기억난다. 편안히 대화하신 덕분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다. 질문을 했을 때 예상치 못한 답변들이 종종 나오곤 했는데 무척 신기하게 느껴졌고 재미있었다.

어르신께서는 그 외에도 군대에서는 어떤 밥을 먹었는지, 군 생활을 하면서 어떤 점이 힘들었는지 당시의 상황을 많이 말씀해 주셨다. 남한군이 북한군에 비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것이 많이 안타까우셨다고 한다. 전쟁에서 다친 상처 얘기도 했다. 어르신의 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시 군인들은 정말 정신 없는 나날을 보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감정에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다는 사실이 꽤 큰 충격이었다.

▼ 홍현달 어르신과 교실에서 다시 이루어진 인터뷰





▶ 두 번째 이야기, 정남학 어르신



▲ 정남학 어르신

정남학 어르신 : 우리나라는 현재 비전투국가야. 휴전상태이기 때문에 평화국가가 아니고 비전투국가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38선 이북에 적을 두고 있는 거지. 38선은 우리가 그어놓은 것이 아니고,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미국과 소련이 갈라놓은 거야. 그래서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따로 들어서게 되었어. 전쟁보다도 배경사상을 먼저 알아

야 해. 공산주의가 어떻게 민주주의가 어떤지. 해방 후에 북쪽은 공산주의인 남로당이 정권을 잡았어. 북한은 남한에 요원들을 침투시켜 공산 세력을 확대하고 훗날 전쟁을 위한 준비를 탄탄히 했어. 하지만 남한은 여수·순천 반란사건 등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충돌하며 사회가 안정되지 않았지. 북한은 공산주의 사상이 확고했었는데 말이야. 그 사상이 굉장히 강하고도 무서운 거야. 결국 사상 차이로 인해 전쟁이 발발했지.

▼ 또다른 참전용사 정남학 어르신과의 대화가 있었다.





▲ 전쟁 당시에 대해 말씀해주시는 정남학 어르신

당시 국군은 인민군에 비해 매우 약했어. 인민군은 전쟁 준비를 꾸준히 했지만 남한은 그렇지 않았지. 군인 수도 적었지만 무기의 수준이 매우 많이 떨어졌지. 군대 체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시절이었어. 나는 학도병이었는데 1951년 3월에 우리 7사단이 춘천을 탈환했어. 한 달간의 전투 끝에 우리는 오봉산 도로도 빼앗았어. 3개 연대가 3방향으로 협공해서 화천의 중공군을 몰아냈는데 많이 힘들었지. 비행기가 계속 날아다니고, 폭탄이 주위에서 터지고 불바다가 되었어. 힘든 전투 끝에 진격에 성공했지. 5월 16일에 양구에 들어왔고 계속해서 북으로 밀고 올라갔어. 그곳부터 국군이 진격하는데 애를 먹었어. 매우 악조건이었지. 인민군, 국군 모두 많은 희생을 치렀어. 하지만 국군의 사기를 인민군이 당하지 못했어. 우리는 해병대와 협공해서 인민군을 후퇴시켰어. 펀치볼 지역을 점령했지. 백암산 전투에서는 미군이 고생하고 있었는데, 우리 사단이 지원하여 탈환하고 밀고 올라가 두 달 만에 백석산을 뺏아냈어. 우리의 목표는 금강산까지 진격하는 거였어. 양구에서 금강산은 굉장히 가까워서 도로가 있었다면 한 시간이 채 안 되는 거리였을 거야. 거기서 인민군 15사단이 저항하는 바람에 힘들게 됐지. 결국 금강산을 빼앗지 못하고 후퇴하고 말았어.



도솔산전투전적비》

2012년 6월 17일 일요일, 도솔산전적문화제를 보기 위해 오전에 학교에서 모인 우리들은 도솔산을 향해 출발했다. 도솔산전적문화제는 1951년 6월 4일에서 6월 20일까지 총 17일간 있었던 도솔산전투에서 순직하신 약 100여명의 참전용사들의 넋을 기리고 위대한 승리를 기념하는 행사였다. 그 당시 국군의 피해는 적군과 비교해 보았을 때 5분의 1정도의 수준이었다니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릴 만 하다고 생각되었다.

도솔산에 도착하니 생각한 것보다 사람과 차들이 많아 복잡거렸다. 군악대가 연주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곳에서 모인 군인들과 사람들이 애국가 제창과 묵념을 함께 했다. 엄숙한 분위기와 군악대의 잔잔한 음악까지 합쳐지자 행사장에서 나누어주신 시원한 오미자 음료를 마시며 현화식을 구경하던 나까지도 자세를 고쳐 잡게 되었다.



▲ 매 년 열리는 도솔산전적문화제에 참여하기 위해 행사장을 찾았다.

그리고 우리는 도솔산 내부 민간인통제구역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는 사전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한다. '살면서 민간인통제구역에 들어가 볼 일이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 무척 기대되었다.

민간인통제구역에 진입하기 전에 인원파악을 해서 철문을 지키는 군인들에게 보고하자 문을 열어주었다. 그렇게 우리는 한여름 도솔산의 푸르른 모습을 놀랍도록 가까이서 볼 수 있었다. 10여 분간 오르막을 올라 능선에 진입하자 사방의 푸르고 험한 산세가 눈앞에 펼쳐졌다. 날씨도 꽤 맑았기 때문에 새파란 하늘과 짙은 녹색의 산이 조화로웠던 그 경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두 번 다시 전쟁 때문에 피로 물들일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하루 빨리 우리 손으로 평화통일을 이룩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도솔산 정상에 있는 **도솔산전투전적비**는 1981년 8월 21일에 해군본부 해병참모부에서 건립했으며, 북쪽의 편치봉을 바라보며 세워져 도솔산의 치열했던 전투를 기리고 있었다. 정상에 이른 우리들은 사방에 펼쳐진 도솔산의 험한 산세를 보고 ‘그 당시 군인들은 어떻게 무거운 군장을 짊어지고 이런 험한 산을 뛰어다니면서 전투를 했던 것인지 모르겠다.’며 놀라워했다. 전적비에서 기념사진을 몇 장 찍고 내려오는 길은 모두 내리막이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길보다는 쉽고 빨랐다. 전쟁과 통일에 대해 평소보다 더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하루였다. 나와 너무 멀게만 느껴졌던 두 단어가 이 활동을 통해서 한 걸음 가까이 다가오게 되었다. / **김혁주 (강원외고 1)**

도솔산지구에서 있었던 전투는 피의능선, 단장의능선, 백석산전투 등과 더불어 6.25전쟁 때의 주요전투로 불린다. 또한 도솔산고지의 탈환여부는 전반적인 전세의 흐름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반세기전 피 튀기는 격전지였던 곳으로 가는 길은 사뭇 가뻘하고, 날씨 또한 화창하였다. 도솔산전적문화제에 도착할 즈음에는 지세가 제법 고지대라 아래 쪽에서부터 올라오는 차량들의 움직임이 한눈에 보일 정도였다. 차에서 내려 걸어 올라가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오르막길인 것 같았다. 힘들게 오르고 또 올라서 문화제가 열리는 장소에 도착했다. 포진을 가다듬은 군인들의 행렬과 가장 앞쪽에 계시는 6.25전쟁 참전 용사들이 '여기가 바로 도솔산이다' 라는 느낌을 주고 있었다. / **신동현 (강원외고 2)**

양구 DMZ스토리에 참여하면서 도솔산 위령제에 참가하고 비무장지대에도 들어가게 되었다. 학교에서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처음 접하는 위령제라는 것에 대해 약간의 기대와 설렘을 가졌다. 도솔산 중턱까지는 차를 타고 갔지만 그 다음에는 걸어서 올라갔다. '도솔산지구 전투전몰용사 추모식'이라는 플랜카드가 걸려 있었다. 국민의례를 하고 묵념을 하는데 수많은 생각이 몰려왔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용감하게 참전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함이 들었지만 동시에 그런 상황을 만든 시대에 대한 원망도 들었다.

현화하는 것을 보고 **도솔산지구전투전적비**가 있는 산 위로 올라갔다. 군인들이 산으로 올라가는 문을 지키고 서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무언가를 보여주자 문을 열어 주었다. 민간인통제구역에 들어간다는 생각에 긴장되었다. 처음에는 떠들면서 신나게 올라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지쳐서 걸음이 느려졌다. 그 저 걸어 올라갈 뿐인데도 너무 힘들었다. 더군다나 길에서 벗어나면 어디에 지뢰가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말을 듣고 나니 겁도 많이 났다.

너무 힘들어 헉헉대면서 산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거의 끝에 다다랐기 때문인지 총을 든 군인 두 분이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거의 다 왔으니 힘내라고 격려해 주었다. 정상에 도착해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풍경이 예쁘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전쟁 중에 군인들이 무거운 배낭을 메고 여기까지 뛰어왔을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다. / **고원주 (강원외고 1)**



양구전투위령비》

두타연은 민간인통계구역 안에 있어서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으나 최근에 관광지로 개발하면서 미리 신청해 놓으면 간단한 신분확인을 거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대신 들어갈 수 있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다.

두타연과의 첫 만남은 두타연갤러리로 시작되었다. 몇 년 전 소지섭이 양구 일대를 여행하면서 낸 사진집을 계기로 만들어진 곳이다. 두타연갤러리 밑에는 백석산전투에 관한 것을 전시해 놓은 곳이 있었는데 지금은 청소도구창고로 쓰이고 있었다. 6.25전쟁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동판까지 있었는데 조금 아쉽고 실망스러웠다.

우리는 약간의 대기시간을 거쳐 두타연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두타연을 향해 올라가는 길에도 역시 군인들이 있었다.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고 '관광'이라는 표찰을 차에 붙이게 한 다음 들어가게 해주었다.

▼ 양구전투위령비를 찾아가기전 두타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양구전투위령비 앞에서 사진을 찍고 다시 움직였다.

우리는 먼저 **양구전투위령비**부터 둘러보았다. 이 비석은 양구에서 죽어간 수 많은 군사들과 학도병들을 위로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군대의 이름과 무명인이라고 새겨진 작은 돌판이 있었다. 최근 누군가 다녀간 듯 각각의 이름 앞에 술잔이 하나씩 놓여있었다.

전쟁으로 인해 희생당한 목숨들을 이 비석 하나로 위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비석을 통해 다시 한 번 전쟁의 비극을 깨닫고, 다시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하늘에서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 민간인출입통제선 안에 위치하는 두타연. 물이 맑고 깨끗하다.

두타연은 민간인출입통제선 안에 위치하기 때문에 자연의 아름다움이 파괴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바위와 산림이 어우러진 이런 경치는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을 것 같다. 두타연이라는 이름은 '두타사'라는 절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옛날 한 스님이 두타연에 있는 굴에 들어가서 수행한 후에 두타사라는 절을 세웠다. 그 두타연의 '두타'와 연못을 뜻하는 '연'이 합쳐져 지금의 두타연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전한다.

두타연의 물은 금강산의 물과도 이어진다. 두타연의 물에 손을 넣어보니 벌써 여름의 맛이 들었는지 제법 시원했다. 두타연의 물에 손을 담갔던 그 짧은 순간동안 북한의 금강산에서 흐르는 힘찬 물줄기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모든 것이 끊어져있지만, 이 물줄기만은 이어져 북한과 남한이 돌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우리 세대의 가장 큰 과제인 통일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는 것일까? / **박연지 (강원외고 2)**



방산반공위령탑》

‘태극기 휘날리며’, ‘고지전’, ‘포화 속으로’ 같은 전쟁영화들은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 중에 하나인 6.25전쟁을 재연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관람하곤 했다. 영화를 통해서 나에게 다가온 6.25전쟁의 이미지는 잔인함과 공포, 그 자체였다. 전쟁은 그 누구에게도 보상받을 수 없는 잔혹한 것이다. 전쟁은 다툼이 생기면 일어나는 것이다. 흔히 친구들과 다툼이 생길 때, 서로 대립하여 냉랭한 기운이 감돌 때가 있다. 이런 싸움이 좀 더 큰 범위에서 벌어지면 그게 바로 전쟁이 되는 것이다. 서로 다룰 때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기 마련인데 한국전쟁은 서로 다른 이념간의 대립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었다. 이는 생각이 서로 다른 형제들끼리 다투다가 서로의 목숨까지 잃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처음 답사하러 간 방산면 장평리 **방산반공위령탑**은 방산성결교회 옆 계단 위에 세워져 있었다. 위령탑의 반듯한 모양에서 6.25전쟁에서 전사하신 병사들의 혼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에 남는다. 우리는 자유롭게 위령탑을 살펴보고 사진도 찍었다. 위령탑을 처음 보았을 때 3개의 탑신 중 가운데 탑신에 위령탑이라고 동으로 새긴 글자가 눈에 띄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동판에 새겨 놓은 위령탑문이 있었는데, 위령탑문(비문)은 방산중학교 전현권 교감에 의해 전장50자 중장50자 종장100자로 구성되어 작성되었다고 한다. 오른쪽에 동판에 새겨진 반공투사 66위의 명단이 있었고, 왼쪽에 건립추진위원명단이 새겨져 있었다. 각자 위령탑 주위를 둘러보고 다시 모여서 문화원 선생님께 위령탑에 얹힌 이야기를 들었다.

방산반공위령탑은 6.25전쟁 전 공산 학정에 항거하다가 산화한 방산면 출신 66위를 봉안한 탑으로 1972년 6월 25일 위령탑건립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건립하였다고 한다. 위령탑의 3개의 탑은 3.1정신의 계승을 표현하였고, 66위의 낮



을 상징하기 위하여 탑의 높이를 6.6미터로 하였으며, 민·군·관의 혼연일체로 정성을 모아 완공한 탑임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 고장을 수호하기 위해 주둔하고 있는 21사단의 마크를 상징하였다고 한다. 초기에 시멘트 탑신이었으나 2000년 탑신에 대리석을 붙였다. 선생님의 설명을 들은 후 이 위령탑이 담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바라보니 좀 다르게 보였다. 6.25전쟁을 겪으신 우리 선조들의 혼을 담고 있고, 그것을 기리기 위한 것이었다.

소수의 결정에 의해 벌어진 전쟁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다수의 사람들은 큰 피해를 입으며 살고 있다. 6.25전쟁도 어쩔 수 없는 우리 역사 중에 하나지만, 민족상잔의 모순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같은 한반도 안에 살고 있음에도 남한과 북한은 반으로 나뉘어져 아무런 교류와 왕래 없이 서로 남처럼 살아가고 있다. 이런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며, 분단된 국가를 다시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는 서로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가야 할 것이다.

/ 유아란 (강원외고 2)

▼ 6.25 이전, 공산 학정에 항거하다 산화한 방산면 출신 66위를 봉안한 방산반공위령탑



6.25참전충훈비》

6월 2일, 양구 향토사대증화사업에 참여한 후 처음으로 현장답사에 나섰다. 첫 현장답사에서 본 것은 **6.25참전충훈비**였다. 이 비는 2006년 10월, 6.25참전 유공자회 양구군지회에 의해 양구읍 고대리에 건립되었다. 도로가에 우뚝 세워져 있는 충훈비의 모습은 주변 경관과는 어울리지 않고 어색한 부분도 있었지만, 전쟁으로 인해 돌아가신 많은 참전 용사들의 위엄을 반영하고 있는 듯했다.

▼ 참전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6.25 참전 충훈비



특히, 처음 충훈비를 보자마자 눈에 띈 것은 비의 가장 윗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별 모형이었다. 가운데 부분의 비문에는 ‘6.25참전충훈비’라고 새겨져 있었으며 비 아래쪽 기단에는 전쟁이 언제 어떻게 발발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글과 평화통일의 염원을 담은 6.25전쟁에서 유명을 달리한 참전 용사 분들의 명복을 빌며 비를 건립하게 되었다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

또 옆에는 **6.25참전위국헌신용사비**가 세워져 있으며 읍면별로 명단이 적혀 있었는데 사상자의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분이 전쟁으로 인해 목숨을 잃으셨다. 이 좁은 지역에서만 해도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났는데 다른 지역의 사상자 수까지 합친다면 6.25전쟁은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가져온 것일까?

목숨을 바치며 우리 나라를 지켜내신 참전용사들의 용기와 기개 앞에 내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다. 만약 내가 전쟁 당시에 살았다면 우리나라에 도움되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전쟁 앞에서 벌벌 떨며 숨어 살아가는 나약한 나의 모습이 그려졌다. 그만큼 목숨을 내놓고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분들이 존경스러웠다.

한편으로는 이 전쟁이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랬다면 현재 세워져 있는 이 용사비의 수많은 참전용사 이름들이 없었을 것이고,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꼬리표도 따라다니지 않았을 것이다. 이 테올로기의 대립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같은 혈족끼리 총을 겨눠야 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해도 지워지지 않을 슬픈 역사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빨리 통일이 이루어져 전쟁의 불안감 속에 살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 **이한결 (강원외고 2)**

양구군 에필로그

94





I 참여 학생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하리 강원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 김수연, 유아란, 이한결, 박연지, 허진우,
신동현, 함석범, 고광수, 강도영

1학년 / 고윤태, 김혁주, 최영은, 고원주, 김지윤

I 참여 강사

김 찬 수 (양구향토사연구 회장)

김 수 연 (양구향토사연구 회원)

병갑설화순지장병충혼비

향로봉

공비전적비

연화동안보전시관

백골병단전적비

인제지구전투전적비

당포함전물장병충혼탑

자유수호희생자위령탑

한석산전적비

현리지구전투전적비

충혼비

DMZ 인제 영상 QR



chapter 4. 인제

65-31
HQ-37

백골병단을 아시나요?

98



용대리 이야기 _백골병단전적비, 연화동전적비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시원한 인공 폭포가 떨어지는 강줄기를 따라 가벼운 언덕길을 올라가면, 산을 등지고 우뚝 솟아있는 **백골병단전적비**를 발견할 수 있다. 이곳은 6.25 당시 북한 땅이었고 백골병단이 활동했던 최북단이었다. 이곳에서 박상욱 대위님께서 우리를 위해 직접 설명해 주셨다. 날씨가 더웠지만 군복을 입으시고도 더운 내색 하나 없이 설명해 주시는 박 대위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

백골병단은 북한 빨치산(partizan) 활동에 대응하여 창시한 국군 최초의 유격부대이다. 창설 당시부터 백골병단이라는 이름은 아니었다. 백골이라는 뜻은 말 그대로 하얀 뼈만 남은 상태를 의미한다. 기왕 적지에 침투했으니 살아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 여기고 백골이 되어 그곳에 뼈를 묻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적지에서 활동하려면 최소한 4주 정도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그 당시 백골병단은 급히 결성되어 단 2주간 훈련을 받고 투입이 되었다. 거기에는 험한 산악 루트 때문에 반 이상이 낙오되었다.

▼ 백골병단전적비 앞에서 박상욱 대위의 설명을 듣고 있는 학생들





백골병단의 활동은 북한군으로 위장 후방에 침투하여 적진을 교란하고 적군의 중요한 인물을 사살하거나 비밀정보를 알아내는 일이다. 그리하여 빨치산 부대의 대장과 참모진 등을 생포하고 우리 군이 북진을 하는 상황에서 북한군들을 소탕하는 업적을 남겼다. 하지만 식량은 2주 분량의 미숫가루와 소금 약간이 전부였고, 또 그 당시는 겨울이라 날씨가 매우 추웠는데 솜옷 한 벌 뿐이어서 굶어 죽거나 동사한 전사자 수가 364명이라고 한다. 결국 살아 돌아온 사람은 40%도 안 되었다고 한다. 가족들과 인공폭포에 놀러왔던 적은 있었지만 이런 전적비가 있는 줄은 몰랐다. 백골병단의 전공을 기리고 순국 장병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워진 이 전적비를 다시 보게 되었다.

6.25전쟁은 60여 년 전의 일이지만, 불과 16년 전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으로 인한 전투가 벌어졌던 연화동에도 순국 장병들의 흔적이 있었다. 우리가 찾아가는 곳은 **연화동전적비**와 안보전시관이였다. 1996년 9월에 북한군이 잠수함으로 강릉시 강동면 앞바다에 침투하여 정찰하다가 돌아가는 중 좌초되어 북한군 25명이 상륙하였다. 이 잠수함은 택시기사에 의해 신고가 되었고, 상륙한 북한군을 찾는 수색작업이 국군에 의해 진행되었다. 북한군은 야밤에 산을 타고 이동하여 이곳 인제군 용대리까지 왔으며 우리 국군과 접전을 벌였다. 이로 인해 우리 군 장교와 장병들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했다. 전시되어 있는 사진들을 볼 때 너무도 끔찍한 광경이 아닐 수 없었다. 훗날 군대에 갈 남동생이 걱정되었다.

북한은 그 후로도 수차례 남한을 도발적으로 침략해 왔다. 우리가 조금만 틈을 보이면 야비한 수법으로 우리 국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북한을 정말 이해할 수 없다. 북한이 있는 한 우리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의 위험 앞에서 불안에 떨어야 한다. 나는 전쟁이 싫다.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싸우는 걸까. 비록 인종은 달라도 모두 같은 사람인데 말이다. 하물며 한 민족끼리 싸운다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다. 6.25에 관련된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마다 나라를 위해 싸운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었지만, 너무 무서운 나머지 죄송하게도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눈물나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다. 내가 그때 군인이었다면 도망치려는 생각만 했을 것이다. 나 같은 사람들만 있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들 하나하나에는 조상들의 피와 땀이 배어있지 않은 것이 없다.

/ 허유경 (인제고 1)

용대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면서도 이런 전적비가 있는지 처음 알았다. **백골병단전적비**는 태백산, 오대산, 설악산을 누비며 싸우다 전사한 3백 60여명 용사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고 한다. **백골병단전적비** 밑에는 전투경로가 그려진 지도가 있었는데, 전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너무나도 자세히 나와 있어 전적비에 대해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백골병단은 '해골'이라는 뜻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희생됐으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 결사대로 전투에 참여하신 모든 용사들에게 감사해야겠다. 당신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살 수 있었다고,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다. 그리고 아직 유골을 찾지 못한 사람들도 많다는데 꼭 천국에 가서 편히 쉬셨으면 좋겠다. / **이예은 (원통고 2)**

미시령과 진부령의 갈림목, 용대 삼거리에 우뚝이 솟아있는 매바위. 그리고 그 맞은편에 탱크와 함께 이름만으로도 비장함이 느껴지는 백골과도 같이 하얀 **백골병단전적비**가 자리하고 있었다. 백골병단은 겨우 3주의 훈련을 받고 영하 30℃를 오르내리는 엄동설한에 2주 분의 미숫가루로 60여일을 연명하며 변변치 못한 무기로 적진 800리를 누볐다. 참전 장비 모두가 백골이 되어서라도 조국을 지키겠다는 그 이름대로 침투 중이던 빨치산 사령관 인민군 중장 외에 지휘부 전원을 섬멸하는 등 조국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였으나,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817명의 용사들 중 364명이 희생되었다. 특히 364명중 61명만이 명예를 찾았고, 303명은 60주년이 지난 오늘 날에도 그 명단이 확인되지 않아 위패조차 봉안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전우회가 무명용사추모비 건립을 추진하여, 60년 만인 2003년 6월 5일 추모비가 세워졌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용대자연휴양림 바로 옆, 작품명 '염원'이라는 **연화동전적비**와 안보전시관이였다. 1996년 강릉 앞바다로 북한 무장공비가 침투했고, 이들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민간인과 아군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연화동전적비**와 안보전시관이 세워진 것이다. 안보전시관에는 사건의 경과, 희생된 대원들의 사진과 유품 등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엄숙한 분위기에서 관람하고 방명록에다 '편히 쉬시라'고 남겼다. 안보전시관 주변에는 무장공비 은신지점, 적탄흔 피탄 지점, 공비 사살 지점 등 그 날의 흔적이 곳곳에 남겨져 있었는데, 당시의 치열하고도 급박했던 상황이 눈 앞에 펼쳐지는 듯 했다. 우리의 일상은 평온하지만 어쩌면 그 평온 뒤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오늘 방문한 두 곳은 모두 내가 태어난 이후로 계속 자라온 용대리에 있는 것들이다. **백골병단전적비**는 초등학교 시절 학교에서 한 번 방문하고 나서 지나치기만 했을 뿐이고, 그에 담긴 자세한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했다. 심지어 **연화동전적비**가 용대리에 있다는 것조차 몰랐다. 내 고장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수많은 호국 영령들과 희생자들이 지켜낸 이 땅을 밟고 살아가면서 도 그에 대해 너무 무관심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되었다.

우리는 슬픈 역사를 갖고 있고, 역사의 소용돌이에 희생된 이름 모를 분들이 너무도 많다. 그 상처들이 아직도 아물지 못한 지금, 우리에게 통일은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몰라도 반드시 직면하게 될 문제다. 과거를 단지 슬픈 역사로만





▲ 백골병단전적비. 박상욱대위의 안내를 받고 있다.

보지 않고, 먼저 제대로 알고 많은 얼룩을 지워 나가야 할 것이다.

/ 정지혜 (원통고 2)

103

어쩌면 지금 우리의 평온한 삶에 뒤에 감춰진 슬픈 역사 덕분인지도 모른다. 1990년 11월 9일 건립된 **백골병단전적비**는 6.25전쟁 당시 육군 중령인 채명신 장군을 단장으로 장렬히 싸우다 전사하신 분들의 호국영령을 기리기 위해 세워왔다고 한다.

연화동공비전적비는 1996년 강릉시에 침투했던 무장공비들의 최후 섬멸지인 용대자연휴양림에 세워져 있다. 휴양림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다리가 하나 있는데 아직도 그곳에 총탄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박물관에는 순직 장병들의 가슴 아픈 일기부터 무장공비들의 최후 사진까지 보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았다. 이번 기회를 통해 6.25전쟁의 아픔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많은 분들께 감사한 마음과 함께 더욱 우리나라를 아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 **김소진 (원통고 2)**



▲ 6.25전쟁 참전용사 심순섭 어르신을 모시고 학생들이 당시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

남북리 이야기_인제지구전투전적비, 자유수호화생자위령탑, 충혼탑》

인제군의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니 인제군이 평소와는 다르게 보였다. 우리 고장의 색다른 모습을 보니 숨겨져 있던 비밀을 찾은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조금 더 걸어 경로정이라는 곳에 도착하였다. 경로정은 제3군단장인 오덕준 장군이 군내 노인 회원들의 휴식처로 제공하기 위해 건립한 곳이다. 그러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올라가 휴식을 취하기엔 올라가는 길이 조금 힘들어보였다.

그 곳에 앉아 심순섭 어르신을 모시고 6.25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 분은 실제 6.25전쟁을 겪으셨던 분이다. 전쟁으로 인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매우 안타까워하시며 전쟁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비극이라고 하셨다. 그 당시 우리 지역은 북한의 영토였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식량을 옮기는 후방 지원을 맡아 하셨단다. 그러던 중 총알이 비껴갈 때도 있었는데 너무 아찔한 상황이었다고 말씀하시며, 전쟁은 명령에 죽고 사는 것이라고 그 당시를 회상하셨다.

1945년 해방 후, 소련이 통치할 때는 식량이 부족해 어려운 생활을 했다고 하
셨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현물세라는 것을 냈는데, 그것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을 먹여 살렸다고 한다. 그것을 통해 공산주의 사회의 현실을 알 수 있었
다. 소련군을 보았는지 여쭙어보니, 마을을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다고 하셨다.
소련군의 인상은 날카로웠으며 무시무시했고, 한반도로 내려올 때 부족한 병
력을 채우기 위해 범죄자를 앞세웠기 때문에 민간 피해가 심각했다고 하셨다.

북한의 남침으로 일어난 6.25전쟁은 결국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념적 대
립으로 이어졌다. 만일 외세를 끌어들이지 않고 북한과 남한이 스스로 해결했
더라면, 지금처럼 분단 상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이산
가족의 아픔을 겪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오
늘 어르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세대가 겪어보지 못했던 전쟁이라는 아
픈 역사를 조금 더 이해하고 알게 된 것 같았다.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며 경로
정을 내려왔다.

▼ 이념대립, 직접 본 소련군의 모습 등을 얘기해주고 계신 심순섭 어르신



DMZ story... 위가 말을 걸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인제지구전투전적비**다. 남북리에 위치해 있는 이곳은 6.25전쟁 당시 캔자스 선을 확보하는데 성공한 전투를 기리기 위해 1958년에 세워졌다. 이 비에는 다른 비들과는 다르게 비 뒤편에 직접 손으로 쓴 것 같은 동글동글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영·한문 혼용으로 쓰여 있었는데, 영어로 쓰인 것 중에는 지금은 쓰지 않는 표기와 존재하지 않는 단어들이 있었다. 중간 중간 깨진 것인지 수정한 것인지 모를 부분도 있었다. 그러나 비석의 귀여운 글씨체는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할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이었다. 그리고 그 글을 읽으며 다시 한 번 전쟁의 아픈 역사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남북리에 살면서도 경로정이나 **인제지구전투전적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인제군이 겪은 전쟁의 역사도 모르고 있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우리 고장에 대해 무지했는지 알 수 있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자신이 사는 고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알고는 있었어야 하는데, 너무 무심했던 것 같다. 이 활동을 통해 인제에 대해 더욱 많이 알게 된 것 같다.

/ **최주훈 (원통고 2)**

2003년 2월,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는 개봉하자마자 엄청난 관객을 동원하였다. 어떠한 정치적, 사회적 이데올로기도 없이 순수한 전쟁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굉장한 반향을 얻었다. 영화의 내용 자체가 특별하진 않았지만, 마지막 장면에서 형의 유골을 안고 평평 울고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우리 속에 남아있는 6.25의 잔재를 깨워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하기엔 충분했다고 생각한다.

취사병, 의무병, 보병, 연락병 등 군대의 역할은 각각 세분화되어 나뉘진다. 군대, 전쟁에선 총, 칼을 들고 적과 싸우는 역할만이 아닌, 다른 군인들을 보조하는 역할도 존재한다. 오늘 심순섭 어른씨께선 앞에서 적군과 죽고 죽이는 싸움을 하는 군인의 이야기가 아닌 뒤에서 다른 군인들을 보조하는 역할에 대해



얘기해주셨다. 음식을 날랐던 얘기, 탄피를 나르다 동료가 총에 맞아 전사했던 얘기 등 일반적으로 쉽게 접해볼 수 없는 얘기들을 해주셨다.

‘전쟁사’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그 느낌이 크게 달라진다. 전쟁을 체험해 보지 못한 7살짜리 꼬마에게 80대 할아버지가 본인이 겪으신 생생하고 실감나는 얘기를 하더라도 꼬마는 그 느낌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를 볼 때의 나는 아직 전쟁을 이해하지 못한 꼬마로 CG효과와 그래픽기술로 치장한 드라마를 본 것에 불과했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을 땐 단순히 전쟁사를 듣는 것이 아닌 어른신 삶의 1/2을 들었고, 교과서에서만 보는 전쟁 연표가 아닌 생생한 경험담을 들었다.

전쟁은 어느 시각에서 바라봐도 불안정하고, 참혹하고, 괴롭다. 6.25가 남긴 한반도의 피해를 열거하면 세상의 종이가 모자랄 지경이겠지만, 전쟁 그 자체로서의 의미보다는 전쟁이 남겨준 여러 깨달음에 중심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겪은 전쟁을 슬픈 역사로 기억하며 절대로 잊지 않게 하고, 교과서에 나오는 딱딱한 언어가 아닌 그 슬픔을 간직하고 있는 마음으로 자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다시는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지 않고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일이 없어지지 않을까.

/ 박상원 (원통고 2)

6.25전쟁은 과거 속으로 사라진 역사가 아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분단과 이별의 통탄으로 맺힌 상처이자 우리 세대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할 과제이다. 우리가 찾아간 곳은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잊고 있었던 우리 민족의 현실이었으며, 대한민국의 젊은이로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살아 있는 역사의 현장이었다.

자유수호희생자위령탑

108



자유수호희생자위령탑이 있는 여기는 휴전 협상을 할 당시 영토를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하여 치열한 격전이 펼쳐졌던 곳이지만, 위령탑 주변은 60년 전 격렬한 싸움터였다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평온한 모습이었다.

전쟁 이후 정부는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기념비를 세우고 박물관을 건립하여 그 넋을 추모하는 등 유족들에게는 나름의 혜택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민간인의 신분으로 참전하여 이 땅을 지켜낸 이들의 거룩한 희생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역사 속에서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증거 불충분과 제도적 조건의 미흡을 이유로 국가 차원의 지원이나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자유수호희생자위령탑**에 안장된 이들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군인들이 아니라 민간인의 신분으로 참전하여 고귀한 생명을 희생한 영혼들이다. 백의종군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이들의 거룩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할 역할과 과제를 곱씹는 기회가 되었다.





다음으로 이동한 장소는 인제군 상동 5리 기룡산 산자락에 세워진 **충혼탑**이다. 그곳에서 6.25전쟁에 참전하셨던 김종근 어르신의 귀중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어르신은 인제군 기린면 하남에서 전쟁에 참전하셨는데, 일제 강점기에 출생하여 일본식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셨다고 한다. 아흔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정정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쟁 경험과 당시의 상황을 전해 주셨다.

▼ 기룡산 산자락에 건립된 충혼탑





▲ 충훈탑 공원에서 참전용사 김종근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는 학생들

6.25전쟁 당시 기린의 청년들은 '기린청년결사대'를 조직해 싸웠는데 어르신은 방위 장교 직책까지 지내셨으며 민간인의 신분으로 전쟁에 참전하셨던 분이다. 인민군 복장을 하고 적절한 상황과 지형지물의 통달을 전투에 이용하여 싸우셨다고 한다.

죽지 않기 위해, 그리고 고향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인민군에게 총칼을 겨눌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듣고 다시 한 번 가슴 아픈 민족상잔의 비극을 실감했다.

민족상잔의 비극이 앗아간 수많은 이들의 목숨,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이 세대는 반드시 이 땅 위에서 피 흘리며 죽어간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과 피 값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민족의 애통하고 비참한 과거이지만 부인할 수 없는 역사의 현장이었으며 지금의 우리가 넘어서야 할 과제이기도 한 것이다.

/ **고유진 (인제고 2)**



서화리 이야기 _ 병갑설화순직장병충혼비, DMZ평화생명동산 》

서화리에서 산 지 벌써 17년째이다. 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인제에 뜻이 담긴 곳이 얼마나 많을까? 내가 모르는 곳이 많을까? 서화에는 전적비나 충혼비가 없으니까 갈 일이 없겠네.'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벌써 열두 번째 탐방이다.

원통에서 20분, 우리가 도착한 곳은 서성초등학교 옆 당봉산이다. 이 산에 충혼비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계단을 오르자 '박정희 영도이구 병갑설화 순직장병 충혼비 사단장 육군준장 박정희 근서' 라고 적혀 있었다.

1954년 1월 하순, 향로봉 일대에 폭설이 내렸다. 적설량은 6미터.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막사가 무너졌다. 어느 병사는 눈 속에서 걷는 자세로 얼어 죽었다. 그렇게 한 사단에서 5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그 때 설화(雪禍)로 순직한 장병을 기리는 충혼비로 당시 사단장이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세운 것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지어진 'DMZ 평화생명동산' 으로 향했다. 6학년 때 이곳에서 글짓기, 포스터그리기 등을 한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그 때 담임선생님이 "새 건물인데 녹이 슬었네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분단을 상징으로 한 디자인이라고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났다. 이곳 관 계자 분이 '인제에는 뿌리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다. 전쟁의 격전지였던 인제에 살았던 분들이 모두 남하하고 전쟁이 끝난 후 다시 정착하셨기 때문에 전통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다고 하셨다. 마음이 찼했다. 여기 있는 우리가 뿌리를 찾고 만들어야겠다. / **강효빈 (원통고 2)**



하남리 이야기 _ 현리지구전투전적비, 충훈비 >>

답사를 위해 간 곳은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에 있는 **현리지구전투전적비**였다. 전쟁 당시 북한군이 불법남침을 자행하였고, 우리 국군은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했다. 그러나 우리군은 미국과 유엔군의 지원에 힘입어 다시 압록강까지 북진했다. 이 전투를 기념하고자 1985년 6월 25일, 육군 제2307부대에서 건립한 비석이다. 이 비석은 우리가 승전하기도 했지만 패전하기도 한 그 당시의 전쟁을 같이 기억하고자 한 것 같다. 큰 바위를 갈거나 깎지 않고 올려놓은 모습이 투박하면서도 진실되게 보였다.

▼ 낙동강 후퇴 후, 압록강까지의 재북진을 기념하기 위한 현리지구전투전적비

縣里地區戰跡碑

113



마지막으로 답사한 장소는 상남면 하남리 하남 고개에 위치한 **충혼비**였다. 이 비석은 좀 더 의미가 있었다. 전쟁당시 국군이 아닌 청년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결사대를 조직하여 생명을 바쳐 싸웠고, 이때 돌아가신 분들을 위로하고 그 호국정신을 길이 후손들에게 전하고자하여 1981년 6월 26일에 기린향우회가 건립했다고 한다. 이 비석은 들어가기 전에 ‘정숙’이라는 말이 돌에 새겨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분위기가 좀 더 엄숙했다. 충혼비 앞에서 한 분 한 분의 성함을 읽어보며, 그 정신을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

/ 주성은 (원통고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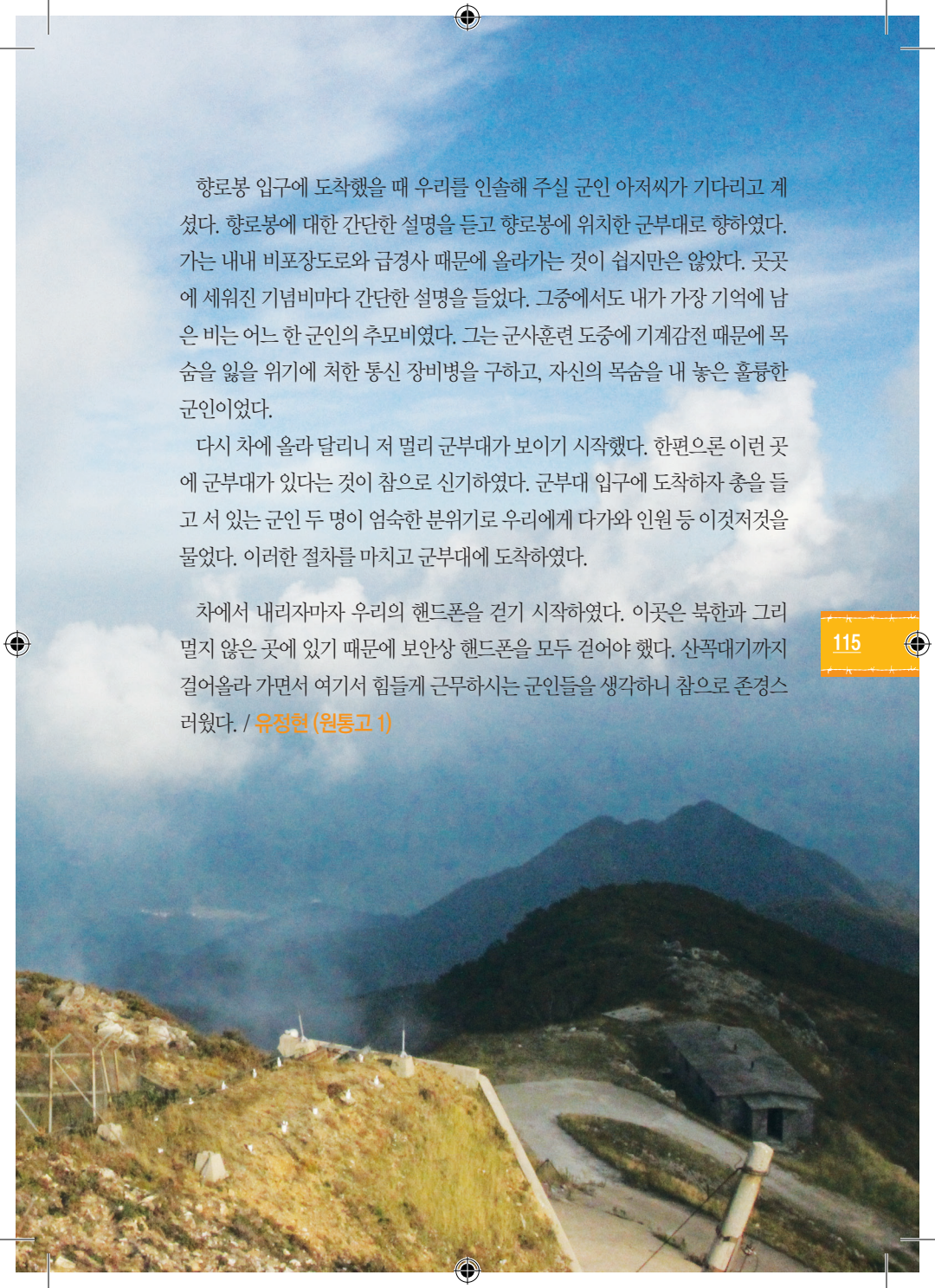
향로봉 이야기》

향로봉은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수동면과 인제군 서화면에 걸쳐 있는 산으로 높이가 1,296m다. 크게 보면 함경남도과 강원도 도계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금강산·국사봉·향로봉·설악산·오대산으로 연속되는 태백산맥 북부를 이루는 산 중의 하나다. 그 곳에는 향로봉 부대라는 군사시설이 있어 공식적인 허가 없이는 가기 어려운 곳이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평소에는 일반인들의 출입조차 어려운 곳을 갈 수 있게 되었다.

향로봉 입구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인솔해 주실 군인 아저씨가 기다리고 계셨다. 향로봉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듣고 향로봉에 위치한 군부대로 향하였다. 가는 내내 비포장도로와 급경사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곳곳에 세워진 기념비마다 간단한 설명을 들었다. 그중에서도 내가 가장 기억에 남은 비는 어느 한 군인의 추모비였다. 그는 군사훈련 도중에 기계감전 때문에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한 통신 장비병을 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 놓은 훌륭한 군인이었다.

다시 차에 올라 달리니 저 멀리 군부대가 보이기 시작했다. 한편으론 이런 곳에 군부대가 있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였다. 군부대 입구에 도착하자 총을 들고 서 있는 군인 두 명이 엄숙한 분위기로 우리에게 다가와 인원 등 이것저것을 물었다. 이러한 절차를 마치고 군부대에 도착하였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우리의 핸드폰을 걷기 시작하였다. 이곳은 북한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보안상 핸드폰을 모두 걷어야 했다. 산꼭대기까지 걸어올라 가면서 여기서 힘들게 근무하시는 군인들을 생각하니 참으로 존경스러웠다. / **유정현 (원통고 1)**





인제고와 원통고, ‘향로봉’에 오르다》

인제고와 원통고 학생들이 남방한계선 최북단에 있는 향로봉(1,296미터)을 탐방했다. 9월 22일 오후 1시, 인제문화원과 철원·화천·양구·고성 문화원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향토사대중화사업>을 위해 인제고(4명)와 원통고(9명) 학생들과 백창현 인제문화원 사무국장, 고영남 원통고 영어교사, 허범두 인제남초 수석교사, 정무교 강사가 미시령에 모였다. 이 사업은 학생들이 접경지역에 있는 전적비에 담긴 역사를 조사해 책으로 만들게 된다.

탐방단은 이승경 대위(12사단 정훈교육장교)의 안내로 미시령 정상에 있는 <향로봉지구전투전적비>를 돌아보며 설명을 들었다. 한국전쟁 당시 맹호수도사단은 1951년 5월 7일부터 6월 9일까지 양양과 간성을 탈환하고 계속하여 설악산으로 진격했다. 패주하던 적은 설악산과 향로봉 일대에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89회나 반격을 했다. 국군은 그 반격을 이기고 설악산과 향로봉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 이승경 대위의 안내로 미시령 정상의 향로봉지구전투전적비를 돌아보고 있다.





▲ 향로봉부대에서는 동해바다가 흰히 보일 뿐 아니라 맑은 날에는 금강산 봉우리도 보인다고 한다.

이어 탐방단은 차에 분승해 향로봉으로 향했다. 향로봉은 태백산맥을 잇는 산이면서 금강산의 봉우리 가운데 하나다. 우리에게는 뉴스에서 ‘향로봉에 첫 눈이 내렸다’는 보도로 익숙한 곳이다. 미시령에서 향로봉으로 가는 길은 대부분이 흙길이었고 군데군데 가팔랐다. 더구나 오른쪽이 절벽이라 위험하기도 했다.

향로봉에는 이곳을 지키는 향로봉부대의 숙소가 있었다. 식사를 준비하는 지 고기를 묶는 냄새가 났다. 이곳에 주차하고 15분을 걸어 북한이 보이는 관측소로 갔다. 작은 건물인 관측소에서 이 지역을 축소해놓은 지형도를 보면서 김종길 향로봉부대장(대위)이 설명을 했다. 이곳에서는 동해바다가 흰히 보이고, 맑은 날에는 금강산 봉우리도 보인다고 했다. 이날 북한쪽에 안개가 끼어 봉우리들을 가려 아쉬웠다. 우리는 옥상으로 올라가 사방을 좀 더 살펴보고았다. 안개에 가려 금강산은 보이지 않았지만 구름은 남과 북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었다.

“북한과 우리나라를 이렇게 앞뒤로 두고 있으니 그저 신기하기만 하네요. 북
한쪽의 산을 내 눈으로 보는 것도 신기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두
고도 북한에 가볼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워요. 통일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향로
봉도 북한도 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유정현 학생 (원통고)이 말했다.

이곳에 서면 누구라도 유정현 학생과 같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 탐방단은 유
난히 색깔이 진하게 핀 길가의 꽃들을 보면서 주차장으로 내려왔다. 다시 차
에 분승하고 툄툄거리는 길을 내려왔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학생들에게 조국
의 현실을 체험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 **인제문화원소식지 '내설악문화' 중에서**



인제군 에필로그

120





| 참여 학생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원통고등학교

2학년 / 김소진, 주성은, 이예은, 김주희, 강효빈, 정지혜
최주훈, 박상원

1학년 / 유정현, 백승원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함강리 인제고등학교

2학년 / 고유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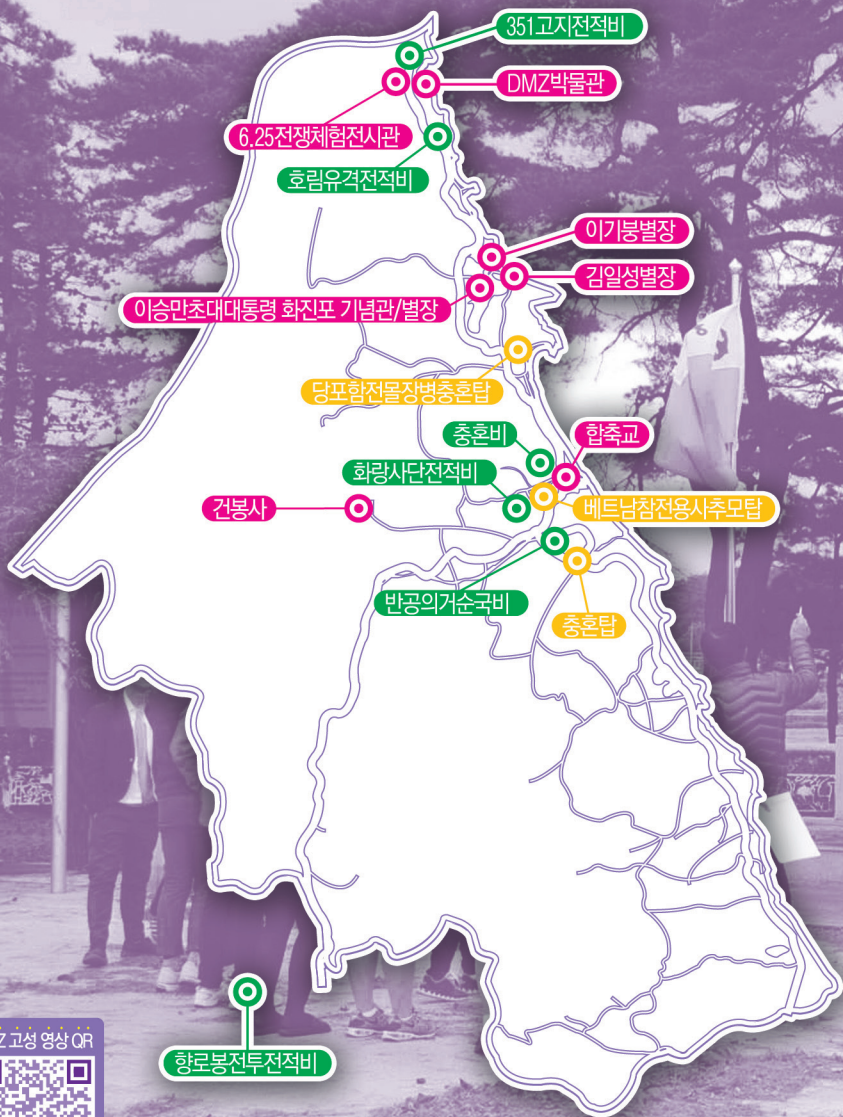
1학년 / 허유경, 허선영, 이산이, 권연화

| 참여 강사

정무교 (인제인문학당 학장) / 김동길 (인제문화원 이사)

고영남 (원통고 영어교사) / 허범두 (인제남초 수석교사)





DMZ 고성 영상 QR





chapter 5. 고성

향로봉^{너머} 금강산^{까지}

124



351고지전적비》

금강산 입구에 자리 잡은 351고지는 동해안 아군의 전초 거점으로 1952년 7월부터 휴전 직전까지 만 1년간 격렬한 공방전이 벌어졌던 곳이다. 우리 국군 제 5, 11, 15 수도사단은 북한군 제7, 6, 19사단과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내는 격전 속에서도 이 고지를 사수함으로써 동해안의 수복지구를 확보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351고지전적비**는 당시 351고지전투에서 호국의 신이 되신 전몰장병들의 전공을 기리고자 1957년 7월 15일 제3군단에서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현내면사무소 뒤 언덕위에 건립하던 중에 현 위치인 통일전망대에 이전함으로써 방문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민족분단의 아픔을 되새기고 자유수호의 증표를 영원히 기리게 되었다.

1 351고지전적비 1

351고지전적비는 고성군 현내면 명호리 통일전망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3군단에서 1957년 7월 15일에 건립하였다. 화강석으로 제작된 길이 0.97m, 너비 0.2m, 높이 2.0m의 비와 화강석 판석으로 제작된 길이 2.88m, 너비 1.27, 높이 2.3m의 기단, 오석으로 제작된 비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125

▼ 351고지전적비. 동해안 아군의 전초 거점이었던 351고지 전투를 기리는 비



6.25전쟁체험전시관



▲ 6.25전쟁체험전시관을 관람하는 학생들

6.25전쟁체험전시관은 영상체험실과 사진으로 보는 6.25전쟁체험실, 전자사유해발굴실, 6.25전쟁자료실, 유엔군참전국실, 기획전시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당시의 참상을 체험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자료·유물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국군홍보실과 국군비전실·병영체험실 등에서는 대한민국 국군의 발전상과 병영생활을 한눈에 볼 수 있다.

16.25전쟁체험전시관 I

6.25전쟁체험전시관은 고성군 현내면 통일전망대 입구 주차장 내(구 CIQ 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7년 6월 22일에 개관하였다. 지상1층의 구조이며 연면적 1,066㎡의 규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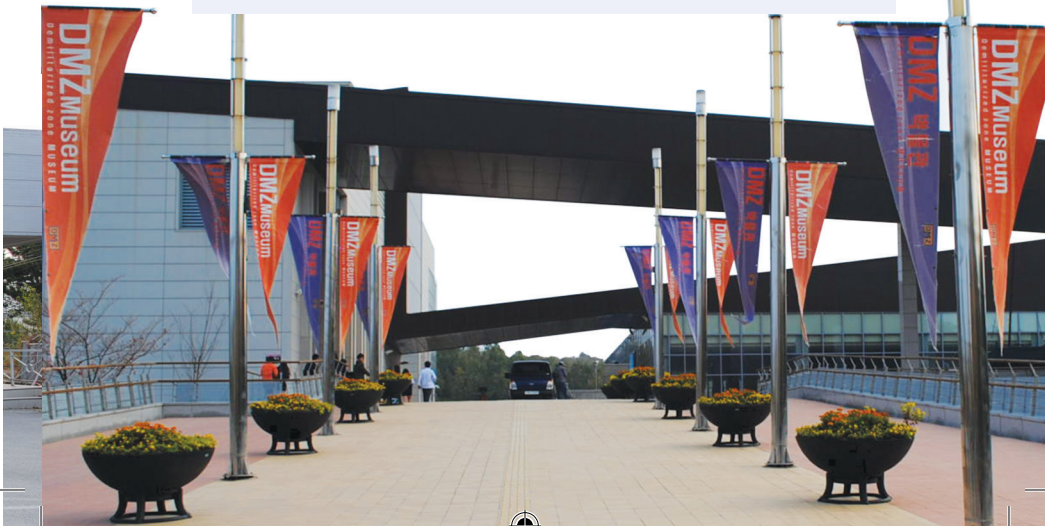
DMZ 박물관



▲ 학생들이 DMZ박물관에서 평화를 기원하는 소원지를 달고 있다.

DMZ박물관은 남북한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전 국민의 염원을 담아 동해안 최북단인 군사분계선과 근접한 민통선 내에 건립되었다.

지구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분단국의 상징인 DMZ를 통해서 지난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전후 모습과 휴전협정으로 탄생한 휴전선이 갖는 역사적인 의미, 동족 간 이산의 아픔, 지속되는 군사적인 충돌, 60여 년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생태환경 등을 전시물이나 영상물로 재구성하여 전시하고 있다.





호림유격전적비》

1949년 2월 강원지역의 청년들과 서북청년단원이 주축이 된 민간인 316명이 유격대를 조직 '호림'이라 이름하고 북한군과 맞서 유격활동을 전개하다 산화하였다. 그들은 머리카락을 담뱃갑 은종이에 싸서 묻고 생무덤을 만들어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으면 동지들의 유해를 거두어 장례를 치러 주기로 혈맹하였다. 1967년 7월 생존 동지들이 18년 전 이곳 생무덤에서 전우들의 분신을 찾아 설악산 기슭에 안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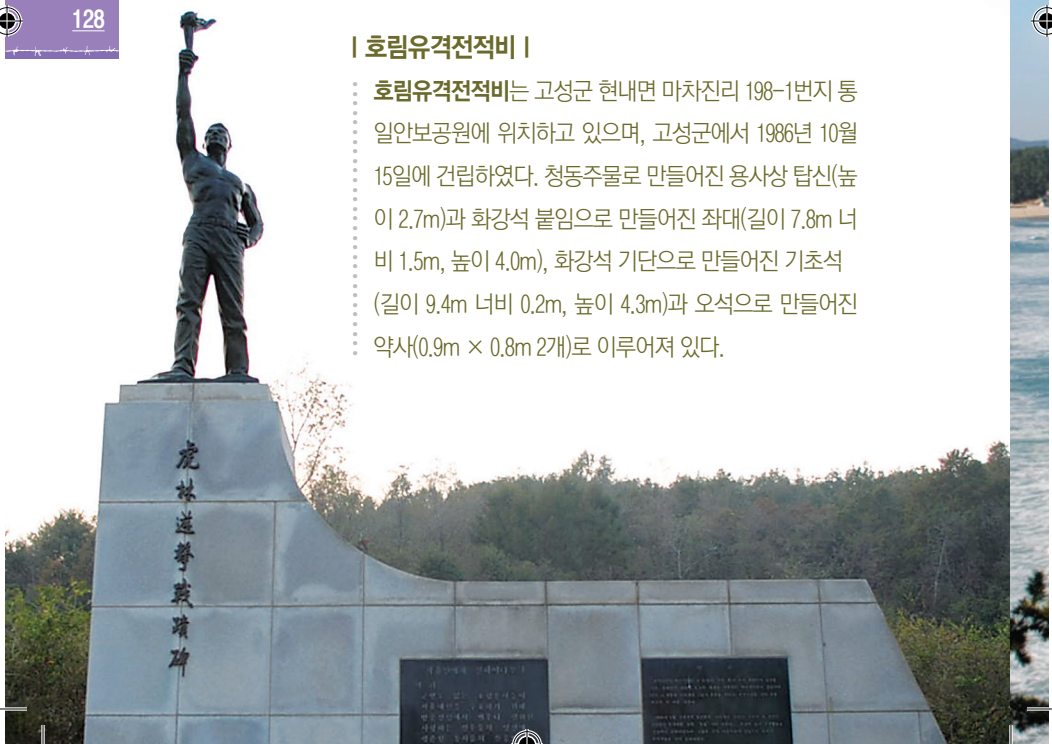
동족상잔의 비극이었던 6.25전쟁 직전 북한군 무장 게릴라의 남침을 저지하기 위하여 숭고한 희생을 치렀던 애국 청년들이 있었기에 여기 그 위훈을 아로새겨 그들의 충혼을 기리고 용전사실을 널리 선양하고자 **호림유격전적비**를 세웠다.



128

호림유격전적비 |

호림유격전적비는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리 198-1번지 통일안보공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성군에서 1986년 10월 15일에 건립하였다. 청동주물로 만들어진 용사상 탑신(높이 2.7m)과 화강석 붙임으로 만들어진 좌대(길이 7.8m 너비 1.5m, 높이 4.0m), 화강석 기단으로 만들어진 기초석(길이 9.4m 너비 0.2m, 높이 4.3m)과 오석으로 만들어진 약사(0.9m × 0.8m 2개)로 이루어져 있다.



화진포안보관광지



이승만 초대대통령 화진포 기념관

이승만 별장 뒤에 새로 지어진 기념관으로 이승만대통령의 업적 등 일대기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친필휘호, 의복과 소품, 관련도서 등이 현대적으로 전시되어 있다. 이승만 별장은 이와는 좀 다르게 침실과 거실, 집무실, 평소에 끼던 안경과 여권, 편지 등 유품이 흥미롭게 진열되어 있다.

화진포의성(김일성 별장)

화진포의성(김일성별장)은 외국인 선교사 셔우드 훈이 예배당으로 사용하였던 건물이다. 김일성은 1948년부터 50년까지 처 김정숙, 아들 김정일, 딸 김경희 등 가족과 함께 하계휴양지로 화진포의 성을 찾았다고 한다. 48년 8월 당시 6살이던 김정일이 소련군 정치사령관 레베제프 소장의 아들과 별장 입구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화진포의성은 지상 2층 석조 건물로 지어져 당시 건축물로는 제법 화려함이 엿보인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훼손되어 방치됐다가 2005년 3월 옛 모습으로 복원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기봉 별장

이승만과 김일성 별장 사이 호숫가에 위치해 있다. 이기봉 별장은 1920년대에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 건축되어 현재까지 보존된 건물로서 해방 이후에 북한공산당 간부 휴양소로 사용되어 오다가 휴전 후에 부통령이었던 이기봉의 처 박 마리아가 개인별장으로 사용하였다. 1999년 7월 전시관으로 정비되었으며, 별장 내 집무실과 응접실 등에는 주전자, 찻대, 문갑 등이 보관되어 있다.



▲ 당포함 피격을 기리고 위로하기 위해 세워진 당포함전몰장병충훈탑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당포함전몰장병충훈탑》

1966년 12월 28일 진해 모항을 출발한 당포함(PCE-56함)은 12월 29일 노량함(PCE-51함)과 임무 교대 후 동해 경비분대에 편입하여 북방한계선(NLL) 근해에서 해상 경비와 어로보호작전 수행 중이었다. 1967년 1월 19일 기함인 경기함(DE-71함), 한산함(PCE-53함), 낙동함(PF-65함)과 함께 북방한계선 근해에서 조업 중인 240여척의 어선들을 보호·감시하고 있었다. 당일 당포함은 북한군 경비함(PBL급) 2척이 우리어선 50여척을 납치하려는 징후를 포착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동해 경비분대 사령관에게 지원을 요청한 후 북한군 경비 함정의 우리 어선단 접근을 저지하는 한편, 기적 신호로 피랍의 위험을 경고하면서 어선을 남하시키고 있었다.

1967년 1월 19일 13시 55분 당포함은 수원단 부근 북한군 해안포대로부터 불의의 기습공격이 시작되자 어선단을 가로막아 방패가 되었다. 북한군 해안포대에 대응하면서 전속력을 다해 지그재그로 회피하는 방법을 시도하였으나, 13시 58분 북한군 해안포의 집중포화에 피격되어 14시 1분 기동력을 상실하고 침수하기 시작하여 14시 34분 북방한계선 부근에서 완전 침몰하였다.

당시 북한군 해안포대의 포격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사명감으로 어로보호작전을 수행하다가 피격 침몰한 당포함 전물장병들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그들의 넋을 영원히 기리고자 **당포함전물장병충훈탑**을 건립하였다.

Ⅰ 당포함전물장병충훈탑 Ⅰ

● **당포함전물장병충훈탑**은 고성군 거진리 산 29-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성군에 의해 1970년 5월 10일에 건립되었다. 화강석 불임으로 제작된 길이 1.133m, 너비 1.13m, 높이 6m의 비와 오석으로 제작된 높이 2.75m의 기단, 대리석으로 제작된 면적 5평의 바닥으로 이루어져 있다.

▼ 우리 어선 50여척의 납치를 막기 위해 희생한 당포함전물장병 충훈탑

131





충혼비》

1951년 4월 20일부터 1953년 7월 27일 휴전 직전까지 2년간 국군 제5, 8, 9사단과 미 제10군단 장병들은 북한군 예하 12, 15, 45사단과 건봉산에서 16차례의 공방전을 벌이는 치열한 전투 끝에 거진지구를 수복하는데 공을 세웠다. 당시 아군이 쏘아댄 포탄의 수만 하더라도 10여만 발로 고지의 주인이 바뀌기를 20여 차례, 이 같은 치열한 공방전 속에서 24시간 쏘아댄 포신이 별경게 달아물을 부여 식혀가면서 싸운 곳이라고 한다.

처음 미 10군단이 당하지 못하고 밀려나자 국군 제5, 8, 9사단과 미 7함대 20여척이 거진 앞바다에 집결하여 합동작전으로 최후의 반격을 가해 중공군 1개 사단과 북한군 2개 사단을 건봉산 계곡에 몰아넣고 섬멸시켰다. 당시 건봉산 탈환은 동부전선 작전의 전과로 일대를 사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산화한 호국 영령들의 충혼의 넋을 기리기 위하여 1956년 9월 30일 거진읍 대대리 302-1번지에 건립된 **충혼비**는 88서울올림픽 성화 봉송로 주변 정비 사업에 따라 현 위치로 이전하게 되었다.

▶ 고성군 거진읍 대대리에 위치한 충혼비. 선생님의 말씀을 학생들이 경청하고 있다.



| 충혼비 |

충혼비는 고성군 거진읍 대대리 52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고성군에서 1956년 9월 30일에 건립하였다. 청동주물의 용사상은 높이 3.2m이고 화강석 불임의 탑은 길이 1.0m, 너비 1.0m, 높이 6.4m로 만들어졌다. 기단은 돌로 나뉘어 있으며 기단 1은 1.75m의 화강석, 기단 2는 1.7m의 화강석 깎 돌로 이루어져 있다.





▲ 향로봉 전투에서 산화한 국군 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화랑사단전적비

화랑사단전적비》

국군 수도사단은 1951년 5월 26일 간성을 탈환하였다. 6월 9일 제1연대는 칠전봉, 기갑연대는 건봉산, 11사단 13연대는 북한군 13사단을 격멸시켰다.

북한군은 27사단과 2사단을 증원 투입하여 2주 동안 83회에 걸친 사상 초유의 집요한 반격을 감행하였으나, 국군 제7사단과 11사단은 924고지와 884고지를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같은 해 10월 15일 수도사단 기갑연대는 북한군 제19사단을 격멸하고, 월비산을 점령하였다. 당시의 격전지인 향로봉에서 피로써 고지를 사수하고 장렬히 산화한 호국 용사들의 넋을 추모하기 위하여 **화랑사단전적비**를 세웠다.

| 화랑사단전적비 |

- **화랑사단전적비**는 고성군 간성을 광산1리 213-15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1959년 11월 30일 고성군에서 건립하였다. 화강석으로 제작된 길이 0.33m, 너비 0.2m, 높이 1.5m의 비와 화강석 깎은 돌과 시멘트 석축으로 제작된 높이 0.9m, 0.8m의 기상단, 기상하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합죽교



▲ 합죽교의 전경

2004년 12월 31일 등록문화재 제143호로 등록된 합죽교는 인공치하인 1948년에 북한에서 착공하여 17개 교각 중 남쪽 9개를 건설하였다. 한국전쟁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남한으로 수복된 후에 우리국군 공병대대가 나머지 부분을 시공하여 1960년도에 완공하게 되었다. 다리의 이름은 원래 '북천교'였으나, 남북이 합쳐져야 한다는 뜻으로 '합죽교'라 부르게 되었다.

합죽교

합죽교는 고성군 간성을 상리와 거진읍 대대리에 걸친 다리로 1938년~1960년 건립되었다. 교량규모는 폭 6m, 길이 214m, 높이 5m이다.



호국불교의 성지 건봉사



▲ 건봉사를 방문한 학생들

건봉사는 전국 4대 사찰의 하나로 월정사(月精寺)와 더불어 전국 31개 사찰의 본산으로 승려 수만 700여 명을 헤아리는 큰 규모의 사찰이었다고 한다. 신라 법흥왕 7년에 아도화상이 금강산 남쪽 명당을 찾아 이곳에 당시 원각사(圓覺寺)를 건립하였다. 건봉사라 이름을 바꾼 것은 이 절의 서쪽에 새 모양으로 생긴 바위가 있어 건(乾)과 봉(鳳)을 합쳐 지은 이름이다.

임진왜란 때 서산대사가 선조의 명을 받들어 의병대장의 직책을 맡게 되자 그 제자인 사명대사가 승병을 모집하였는데 모두 6,000여 명의 승병이 이곳에 모여 왜적을 무찔렀다 한다. 한국전쟁으로 불타 지금은 옛 절터만 남아 있었으나, 근래 활발하게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대웅전, 명부전, 적멸보궁, 봉서루 등이 복원되었다.

반공의거순국비》

1945년 8월 15일 해방 후, 우리고장 고성은 38선 이북에 포함되어 공산치하의 신탁통치가 시작되었다. 이에 항거한 반공애국지사들은 결사적으로 반탁운동의 선구자가 되어 북한의 공산치하에 대하여 반공 투사의 횃불을 높이 들었으나,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학살이라는 가혹한 이름하에 불귀의 혼이 되었다.

1954년 11월 한국전쟁 후 대한민국으로 수복되어 그들의 위업을 후세에 전해 승고한 넋을 받들고자 반공보루의 최전선 지구인 와우산 기슭에 애국동지들의 성금을 모아 **반공의거순국비**를 세우고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있다.

Ⅰ 반공의거순국비 Ⅰ

- 반공의거순국비는 고성군 간성읍
- 상리 196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 1966년 12월 21일에 건립되었다.

- 오석으로 만들어진 비(높이 2.01m,
- 넓이 0.72m, 폭 0.39m)와 애석으
- 로 만들어진 관석(높이 0.6m , 넓
- 이 1.2m, 폭 0.75m), 화강석 및 콘크
- 리트로 만들어진 좌대(높이 0.75m,
- 넓이 2.82m, 폭 2.4m)로 이루어져
- 있다.



충혼탑》

겨레의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신명을 바친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정신을 널리 알리고자 세워진 **충혼탑**은 6.25전쟁 중 산화한 호국영령과 나라를 위하여 몸바친 불귀의 고혼 김영기 외 63위를 추모하기 위하여 1973년 9월 29일 건립하고 1984년 5월 25일 보수하였다.

| 충혼탑 |

- 본 **충혼탑**은 고성군 간성읍 상1리 196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성군이 1973년
- 9월 29일에 건립하였다. 콘크리트 10m 높이의 탑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 6.25한국전쟁참전용사공적비 앞에서 공적비에 대해 열심히 듣는 학생들

6.25한국전쟁참전용사공적비》

1945년 8월 15일 일제치하에서 해방되자 38선을 경계로 남과 북이 분단되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를 기하여 북한군은 전차 및 중화기로 무장하고 불법남침을 감행하였다. 당시 국군은 전세가 불리하여 대구 낙동강까지 후퇴하기에 이르렀으나, 인천상륙작전을 기점으로 9월 28일 수도 서울을 탈환하고 여세를 몰아 북진을 거듭하였다. 평안북도는 물론 동부전선에서는 함경북도까지 북진하여 남북통일을 눈앞에 두었으나, 공산군이 중공군과 합세하여 다시 전세가 불리하게 되어 1.4후퇴를 맞이한다. 치참한 전쟁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한 전우들의 넋을 기리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나라 평화통일을 기원하며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고성군지회 회원들의 뜻을 모아 6.25한국전쟁참전용사공적비를 건립하였다.

Ⅰ 6.25한국전쟁참전용사공적비 Ⅰ

- ： 6.25한국전쟁참전용사공적비는 고성군 거진읍 대대리 510-8번지에 위치하고 있
- ： 으며, 2005년 6월 3일 6.25참전유공자회 고성군지회에 의해 건립되었다.

향로봉전투전적비》

고성군과 인제군의 접경지역에 위치한 향로봉에서 가장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졌던 시기는 1951년 4월 20일부터 1953년 7월 27일 휴전 직전까지였다. 당시 양양과 간성을 탈환하고 북진 중에 있던 국군 수도사단과 11사단이 향로봉과 동굴봉을 공격하여 인제-고성 간 도로를 확보하는 한편 중동부 전선에서 퇴각하는 북한군과 중공군의 퇴각을 엄호하려 했던 북한군 13사단 주력부대 간에 벌어졌던 전투이다.

▼ 만 2년간 벌어졌던 전투를 널리 선양하기 위해 세운 향로봉 전투 전적비



그 후 국군은 만 2년간에 걸쳐 되풀이된 적의 집요한 공격을 끝내 물리치고, 이 고지를 사수하였다. 1951년 5월과 6월에 걸쳐 우리 수도사단 장병들은 양양과 간성을 탈환하고 계속 설악산을 향하여 진격하였다. 이때 공산군은 설악산과 향로봉에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아군에 대항하였다.

이 전투는 만 2년간에 걸쳐 계속 되었으며, 공산군은 89회에 걸쳐 엄청난 공격을 하였는데 끝내 아군이 격퇴당하고 말았다. 이에 조국 수호의 원혼들을 기리고 용전사실을 널리 선양하고자 **향로봉전투전적비**를 세웠다.

| 향로봉전투전적비 |

● **향로봉전투전적비**는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 262번지에 위치해있으며 제 3군단에서 1957년 7월 15일에 건립하였다. 길이 1.5m, 너비는 0.2m이며 화강석 불임기 단석을 포함한 높이는 3.7m이다.

짧은 글, 긴 여운 >>

DMZ스토리 조사를 다니면서 많은 전적비와 기념비를 봤는데, 그 중 가장 기억에 남고 가슴에 와 닿았던 비는 통일전망대에 있는 **351고지전적비**다. 351고지전투는 한국전쟁 말기 한 치의 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금강산을 탈취하려던 적군과의 뺏고 빼앗기는 치열한 공방전이었다고 한다. 말로만 들어도 정말 치열했던 전쟁인 것 같다.

통일 전망대 꼭대기에 올라가니 저 멀리 북한의 산과 모습들이 짝 펼쳐져 보이면서 그때의 전쟁 상황과 남북 분단의 현실이 더 가깝게 느껴졌다. 또 DMZ 박물관에도 들렀는데 그곳에 가자마자 눈에 띈 것은 북한주민들이 탈북을 할 때 쓴 20명 정도가 탈 수 있는 허름한 배였다. 박물관 안에는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의 유품들과 유골 등이 있었다. 그 유품과 유골을 보면서 우리나라를 위해 열



심히 싸워주신 군인들에 대한 감사함을 느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보의식과 애국심을 더 높게 가지고, 전쟁이라는 무섭고 슬픈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서 전쟁으로 인해 생긴 이산가족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으면 좋겠다.

/ 윤서희 (대진고 1)

통일전망대에 가서 보았던 **351고지전적비**와 **호림유력전적비**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다쳤을 것을 생각하니 안타까웠다. 그리고 6.25전쟁기념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우리가 이 활동을 하는 취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통일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았다. 또 신촌마을에 있는 북한에 가족들을 두고 오신 분들의 참배 장소인 **망배단**에서는 이산가족들을 생각하며 함께 묵념을 드리고 왔다.

마지막 활동으로 거진을 대대리에 있는 **충훈비**, **베트남참전기념탑**, **창조의 탑**, **6.25참전용사공적비**를 보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모습과 맞서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솔직히 이 지역에 살면서도 관심을 가진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 기회로 지역에 대해 조금 이나마 더 알게 되어서 다행인 것 같다. / **정다움 (대진고 2)**

우리가 처음 간 곳은 진부령 **향로봉전투전적비**와 건봉사와 육송흥교였다. 여태까지 광산길이나 건봉사를 둘러보면서 한 번도 전적비를 보거나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색다른 경험을 해서 좋았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이승만 별장, 이기붕 별장, 화진포성에 다녀왔다. 셋째 날에는 간성 대대리에 **충훈탑**과 **월남참전기념비**, **정도600기념망배단**을 다녀왔다. 평소엔 접할 수 없었던 뜻 깊은 경험이었고, 대학에 가서도 다시 하고 싶다. / **전지은 (대진고 2)**



처음 담임선생님께서 DMZ조사에 참여할 아이들을 모집한다고 하셨을 때, 최북단 명파마을에 사는 내가 DMZ에 관해 더욱 잘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참여하게 되었다. 통일전망대와 DMZ박물관은 학교 체험활동으로 많이 가봤던 곳이었지만, 이번 활동을 통해 더 새로운 것을 알았고 전쟁의 피해가 가슴깊이 전해지는 것 같았다.

호림유격전적비의 뒷면에는 우리고장을 지키기 위해 전쟁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명단이 새겨져 있었고, 우리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묵념하였다. 특히 **망배단**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거나 놀았던 곳이었는데 이번 활동에서 그곳이 이산가족을 만나지 못한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세운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평소에 무심코 지나갔던 곳과 우리고장에 대해 다시 한 번 느끼고 생각하게 되었다. 한국전쟁, 그리고 휴전하고 있는 이 아픔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 **권소라 (대진고 1)**

첫 번째로 간 곳은 진부령에 있는 **향로봉전투전적비**다. 6.25전쟁 당시 '향로봉'이라는 고지를 사수하기 위하여 밀고 밀리고를 수없이 반복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많은 병력이 손실되고 피해가 심각했다. 고지를 빼앗기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고지와 보급 선로들이 다 차단당하는 불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수많은 전투가 발생했다고 한다.

거진에서는 **당포함전물장병충훈탑**에 갔다. 그때 상황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표지판을 읽고 탑 앞에서 묵념도 하였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현내면에서도 **망배단**이라는 공원 맨 위에 탑이 있었는데 북한에 고향을 두고 오신 분들의 참배장소라고 한다. 이번 DMZ스토리 조사를 통해서 국민이 나라의 힘이고, 우리의 의지가 통일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느꼈다. / **김민진 (대진고 1)**



약 2주간의 활동으로 지역의 문화재와 전적비 등을 탐사했는데, 우리 지역을 지키기 위해 애쓰신 용사들과 그 유물들이 나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또 능파교, 불이문, 육송정홍교는 바위가 서로 지탱하고 있어 쓰러지지 않고 유지되는 것이 신기했다. DMZ박물관과 전쟁기념관 등에 전시된 6.25 참전용사들의 유물과 활동이력을 보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 **박주윤 (대진고 2)**

이번 DMZ스토리에 참여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고장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곳은 바로 DMZ박물관이다. 이렇게 뜻 깊고 의미가 있는지 모르고 지나왔는데 고성문화원 선생님들이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실 때마다 머리에 쑥쑥 들어오면서 이해가 잘 됐다. 충혼비, 전적비가 있는 곳에 방문할 때면 잠깐이지만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 묵념도 하면서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언제 또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하고 싶고, 나중에 잘 모르는 친구들에게도 여기는 이리이러한 곳이고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고 설명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 **장희지 (대진고 2)**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DMZ스토리에 참여했는데 충혼비, 통일전망대 같이 의미 있는 장소들을 다녀왔다. 그냥 지나치기만 했던 충혼비도 처음 보게 되었고, 거진과 간성에 이어져있는 다리가 문화재라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다. 또 통일전망대에서는 북한 금강산도 보였고, 북한과 우리나라의 경계선인 철조망도 보였다. 우리민족이 분단되어 각각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같은 민족인데 서로 총을 겨눠서 죽이는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겠다.

/ 정진현 (대진고 2)

대대리에 있는 베트남참전비나 간성에 있는 충혼비는 간성에 살면서 알지 못했었고, 매일 등교하는 길에 지나가는데도 이번 활동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 앞으로는 우리지역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겠다. 가는 곳마다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하나하나가 다 신기할 따름이었다. 일주일에 두 번씩 DMZ활동을 하는데 매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미있었다. / 최혜빈 (대진고 1)



DMZ

고성군 에필로그

146





I 참여 학생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대진고등학교

2학년 / 박주윤, 정진현, 전지은, 정다움, 장희지

1학년 / 김민진, 박성종, 권소라, 최혜빈, 윤서희

I 참여 강사

황광울 (고성문화원 감사)

DMZ story,
두 번째 이야기
바위가 말을 걸다...

어느 날부터 바위가 우리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리 와~! 얼른 와서 내 얘길 들어보렴.”